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제를 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해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해님에게서 영하신 율례와 계명을 지킴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열왕기하 17장 3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71호 2012년 2월 1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세금으로 낙태시술 할 수 없다!

미 언론, 가족계획협회에 코멘재단 지원중단 논쟁 원인 소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운동가들에게 "핑크 리본"은 문화 전쟁의 상징이다. 즉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로서 사는 것보다 경력이나 직업을 가진 전문인으로 살기 위한 방편으로 낙태 시술소를 가게 된다. 그런데 미국낙태시술기관(가족계획협회, Planned Parenthood)의 최대 기부 기관인 '수잔 코멘 재단' 즉 전 세계 여성들의 유방암 퇴치 운동을 벌이는 코멘 재단이 올해부터는 가족계획협회에 더 이상 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코멘 재단은 2011년도 한 해에만 6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동 협회에 지원했다.

그러나 코멘 재단의 결정이 현재 미국사회에 논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동 협회가 연방정부기금 즉 미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2010년에만 329,445건의 낙태 시술을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낙태를 원하지 않는 미국인들의 세금이 정부 기관 로비 단체의 역할(?)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낙태에 쓰이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미 언론은 코멘 재단의 기금중지로 불거진 "가족계획협회"에 관련된 미국사회의 찬반 논란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에서 '낙태 자유화' 바람이 분 계기는 1973년 일어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사건이었다. 텍사스 주에 사는 임신 여성 로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정부 법무장관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다른 주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한 소송이었다. 결국 법원이 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여성에게 임신중지 권리가 광범위하게 인정됐다.



워싱턴 DC 대법원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논쟁이후 형성된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속하고, 그 실행은 의사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3-6개월 사이는 주정부가 낙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후기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낙태에 대한 진보와 보수 계열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미국 사회에서 낙태는 끝없는 논쟁을 낳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로마가톨릭과 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낙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낙태에 대해 옹호하는 주장을 해왔다. 오바마는 지난 '로 대 웨이드' 판결 36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여성들이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특히 낙태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개인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차

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낙태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보수 진영 및 복음주의 교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반면에 공화당 경선주자들은 낙태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있었다. 특히 릭 샌토럼 후보는 7명의 자녀를 둘 정도로, 생명 존중 입장에서 정부가 낙태

에 직접적인 기금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논쟁의 정점이 된 가족계획협회는 지금은 사퇴한 공화당의 흑인 대선후보 허먼 케인이 임신중절 시술은 흑인 아기에 대한 '계획적인 학살'(planned genocide)이라고 비난한 사건으로, 이미 미국사회에서 논쟁이 재점화 됐다.

<3면으로 계속>

팀원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라!

Growth Points, 게리 맥킨토쉬 박사의 건강한 팀양육 3가지 요건 소개

미국 교회성장의 권위자인 게리 맥킨토쉬(Gary McIntosh) 박사는 최근 건강한 팀을 양육하는 일(Nurturing Healthy Teams)을 논한다. 그는 건강한 팀을 양육하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첫째, 팀원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라. 둘째,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라. 셋째, 팀원들을 후원하라.

함께 모여 주의 깊게 계획할수록 조화적 정보 보류는 팀원 조화와 신뢰 급속과과 적절한 감사와 칭찬, 팀원 고통에 민감

팀원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라

팀원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의 시간을 가지라. 첫째, 팀원들이 함께 모여 나누고 계획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라. 사람들은 주의 깊게 계획을 하면 할수록 더욱 조화를 이룬다.

둘째, 팀원들의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친해지라.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관계를 잘 유지한다. 3개월에 한 번은 팀원 전체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라.

셋째, 팀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역과 나눔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 팀원 각자는 팀 리더와 더불어 한 달에 한 번은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시간은 사역과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토론하는 공식적인 때를 의미한다.

넷째, 팀원 각자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 건강한 팀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팀 리더가 팀원 각자를 잘 알아야 한다. 팀 리더는 팀원 모두와 교제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은 시간을 내야 한다. 이러한 교제는 여행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뤄질 수도 있다.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라

최선의 팀은 팀원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소통은 팀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건강한 팀은 이메일이나 메모 뿐 아니라 직접 대화를 한다. 적절한 정보를 보류하는 것만큼 팀원들의 조화와 신뢰를 급속히 파괴하는 것은 없다.

팀원들은 종종 교회의 각종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3면으로 계속>



2면 멕시코 마약전쟁엔 악마의 유혹이 담겨져



7면 "믿음의 리더십"으로 공동체 성장시켜라!



13면 "오라, 런던으로! 나가자, 세계를 향해!" 런던올림픽을 선교의 현장으로



13면 2012년 세계이슬람 단편 뉴스 전호진 박사

장영춘 목사 원로목사 추대 예배



장영춘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를 설립하시고 38년 동안 섬겨 오신 장영춘 목사님의 원로목사 추대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이 복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주후 2012년 2월 26일(주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퀸즈장로교회 본당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전화(718)886-4040 FAX(718)358-7789

이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퀸즈장로교회 담임 박규성 목사 및 교우 일동



시론

우리가 다시 서야 할 출발점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지난 4일 LA의 슈라인 오디오리엄에서는 구스타프 말리의 8번 심포니 '천인(仁心)교향곡'이 화려하게 연주됐다. LA필하모니와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 오케스트라 190명, 8명의 솔리스트와 16개 합창단 813명(한인LA챔버콰이어 포함)으로 다 합쳐 1,011명의 공연이 5,400여 청중들로 만석된 가운데 성대하게 연주됐다. 이 연주회의 주인공은 당연히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2008년 약관 27세의 나이에 LA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음악감독인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이었을 것이다.

나는 기사를 보면서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e Antonio Abreu) 박사를 생각했다. 세계 제2위의 석유매장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치 교육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빈곤과 마약,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는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비통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적은 힘으로도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30여년전에 도전했다. 그는 조직이라는 의미의 '엘 시스템아'라는 단체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빌려주고 무료로 레슨을 받게 하며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갖게 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노력이 놀라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구미각국에 베네수엘라 출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에는 30개의 오케스트라와 125개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으며, 현재 275,000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엘 시스템아에서 미래 음악의 꿈나무로 성장하고 있다. 두다멜과 시몬 볼리바 오케스트라가 엘 시스템아의 작품임을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70대 중반인 아브레우 박사는 최근의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10년 안에 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도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에 비분강개했던 인물이 있다. 느헤미야다. 그는 예루살렘에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성문은 불타 백성들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에 가슴을 찢었다. 느헤미야를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이런 열악한 현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좌절감, 패배의식, 그리고 정체성 상실의 자리잡아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모든 안락한 현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52일 만에 성벽재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나는 그가 최초로 보였던 그의 반응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1:4)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 적어도 4개월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찾았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은혜를 구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부조리한 현실들에 직면해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세상은 썩은 냄새로 진동하고 암흑천지가 되어버렸다. 교회지도자들의 탐욕과 비리와 죄악들로 인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못함을 인해 강하게 비판, 조롱당하는 한국교회의 현실들을 볼 때 그렇다.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변역복음이 강변되며 대안이 없어서 이단에 속한 자를 대통령후보로 지지하는 미국의 쇠락해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지구상에서 가장 깨어 있다는 중국교회 성도들조차 최근 빠른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간다는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들 속에서 깨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느헤미야처럼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뿐이다. 먼저 우리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자. 하나님 앞장 서서야 모든 일은 올바르게 풀린다. 기도로 우리 공동체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재를 뿌리며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금식기도의 영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 기도원에 올라가 밤을 지새며 부르짖어 기도하던 구국기도의 영성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멕시코 마약전쟁엔 악마의 유혹이 담겨져

크리스천포스트,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마약 갱' 보도

지금 멕시코 국민들은 온갖 고초란 고초는 다 겪고 있다. 가뭄, 신종플루, 신종플루 여파로 닥친 관광산업 붕괴, 주요 수출품인 석유 매장량 고갈, 재정 위기 등등. 얽힌 데 얽힌 격으로 마약밀매와 마약 때문에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인들은 여러 신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죽음의 성녀는 그런 초자연적 존재들 중 하나일 뿐이다. 지난 20년 동안 멕시코의 살인 발생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마약 거래상들이 벌이는 범죄는 한결같이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치안과 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본 선량한 멕시코인들은 마피아와 멕시코 정부의 마약 전쟁에서 마피아가 승리한 게 아니냐며 대놓고 말할 정도다.

수 년 동안 멕시코정부가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벌여도, 마약 제조나 밀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바로 멕시코에서 유일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악마의 유혹이 깃들여져 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마약 갱이 되는 방법은 자신의 선택으로, 기존 마약 갱들의 협박으로 그리고 악령의 유혹으로 마약 카르텔의 일원이 된다.

크리스천 포스트(Christian Post) 지는 마약 카르텔의 일원이었다가 미국으로 도망을 나와 목회자가 된 전 마약 딜러와의 취재를 통해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 더욱 더 확산되고 있는 멕시코 마약 문제의 종교적인 원인을 보도한다(Mexican Drug Dealer Turned Evangelist: I Saw Satan in the Drugs).

수감자 엘니뇨는 '범죄처벌시행 센터' 교도소에 들어온 지 꼬박 아홉 해 하고도 여섯 달이 흘렀다. 훌쩍 큰 키와 호리호리한 몸집에 천진하게 히죽거리는 표정을 보니 나이

다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며 절망에 빠진 자들,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지키는 '산타 무에르테', 즉 '죽음의 성녀'다.

멕시코시티 가톨릭대교구의 휴고



죽음의 성자를 모시는 이 집단은 지난 6일, 멕시코시티대성당 주변에 몰려들어 자신들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가톨릭 측은 자신들이 군 당국을 사주했다는 그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가톨릭 측은 교리에 비추어 이 집단이 교리에서 벗어난 점을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연

자를 신봉하는 집단은 공개적으로 변절자나 내부 고발자나 자신들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목을 베어 공개 처형한다. 목을 베어 처형하는 습관은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인신공양의 수단으로 사용돼왔던 종교적인 의식이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숭배와 흑마술적인 요소들의 보습은 오랜 기간 동안 멕시코 사람

'죽음의 성녀' 추종자들 성전(聖戰) 주장 교회에 테러 자행 군 당국, 종교 가장한 마약범죄소굴로 판단해 대대적 단속

를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다. 엘니뇨가 저지른 짓 때문에 누군가는 머리가 하얗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일곱 살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엘니뇨는 스무 살 때 살인을 저지르고 여기 멕시코 북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연제 철창신세를 면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엘니뇨는 잘 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내심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감옥에서 절대 소지할 수 없는 물건, 그러니까 들키면 형기가 수십 년 늘어날 물건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수호신이 보우하시 교도관들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니뇨는 말한다. "코앞에 있는데도 모릅니다." 적들이 사방을 에워싸도 이 초자연적인 존재는 그를 굶어 살핀다. 그러자 안토니오가 한마디 거든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조차 모조리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멕시코 속담처럼 날 보고 깃어줄 개 한 마리 없는 사고무친 신세가 되어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신

발데마르 대변인은 최근 "죽음의 성녀"를 숭배하는 사이버 종파의 추종자들이 이른바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뿐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죽음의 성자를 숭배하는 이 종파는 특히 마약밀매조직원들과 죄수, 전과자들 등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 군 당국이 이 종파를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집회장소가 사실상 종교 활동 장소를 가장한 마약 등 범죄의 소굴로 판단해 집회 장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이 종파는 자신들에 대한 탄압의 배후에 가톨릭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톨릭에 대한 성스러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종파는 주로 멕시코 북부 미국과의 국경지대를 통해 넓게 퍼져 있다. 이는 마약 조직이 지리적 특성상 마약의 주요 수요처인 미국과의 국경지대에서 활동한다는 점 때문이다.

구해 사이버 이단 종파로 규정했을 뿐이며, 군 당국은 군 당국대로 이 종파가 범죄조직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과 대다수의 종교적 정서와 동떨어진 신앙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측은 그러면서도 이 종파의 종교의식과 교리는 매우 미신적이고 악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통 가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자들이 이 종파의 교리와 의식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 중, 죽음의 성

들을 사로잡는 악한 영의 속박이자, 구속이다.

악한 영의 저주로, 마약업자들이 점차 사회 지도 계층에 편입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바로 멕시코 전체를 병들게 하는 또 다른 저주이다. 그만큼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라난 수많은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마약 조직에 가담해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을 밀매하자, 멕시코는 어느새 콜롬비아를 제치고 코케인 수출(?)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notice about a change in publication details.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ext about degree programs, study o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미주 갈멜산기도원' (Midwest Galmel Mountain Church) featuring details for a '개원 예배 및 기념 기도성회' (Inauguration Service and Memorial Prayer Service).

2010년에만 낙태시술 329,445건

미 언론, 가족계획협회에 코멘재단 지원중단 논쟁 원인 소개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케인 후보가 밝힌 논쟁의 중심 즉 임신부들에게 다른 관련단체들이 “진실한 상담”을 제공하는 동안 가족계획협회는 낙태를 권유하는 행태가 바로 문제이다. 동 협회가 이처럼 낙태를 권유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운영 자금 확보에 낙태만큼이나 분명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동 협회의 1년 예산은 무려 1조 달러에 육박한다. 그 중 50%가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그랜트나 시술을 받은 환자 치료비를 정부에 청구해서 충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 곧바로 낙태에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태 시술이나 청구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화당 주도의 연방 하원에서는 올해 연방정부 기금이 동 협회에 지원되지 않는 법안을 인준하게 될 예정이다. 주 정부 차원에서도 2011년 8천만 달러가 삭감돼 예산이 축소되고 전국에 산재된 동 협회 기관들이 문을 닫게 됐다.

이에 대해 여성 인권옹호론자(Pro-choice)들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반박하면서 당장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기금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

로, 미 국민들은 연방정부가 자신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 정부에 분명하게 요구하게 돼 여성 인권옹호론자들의 주장이 전혀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동 협회 기관들이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그리고 워싱턴 주 등에서 낙태를 마친 환자들에게 약품을 조제해주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부기관에 청구를 하게 됐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수정된 순간부터 낙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다. 가톨릭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며 중도 입장에서는 근친상간과 강간 등으로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지지하고 있다.

결론으로,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정부 기금의 철회는 바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준 사건이다. 미국사회에서 흑백 인종 갈등은 거의 수십 년을 거쳐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42년 만에 낙태에 대한 시술에는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기금 즉 미국인들의 세금이 사용될 수 없고, 수정된 이후 “하나의 생명”인 태아의 권리가 여성의 권리보다는 우선이라는 진리가 통용되고 있는 순간으로 미국사회는 접어들고 있다.

팀원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라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것은 복잡한 사역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한편으로는 팀원들은 자신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팀원들이 정보를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라. 팀원들이 자신의 사역을 관장하는 리더를 찾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

공식적인 회의보다 팀원들 사이에 개인적인 대화가 유지되도록 격려하라. 개인적인 관계는 신뢰를 낳는다. 상호 정직함에 관한 기대감을 구축하라. 좋은 의사소통은 시

로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팀원들을 지원하라

지도자는 공급자이다. 따라서 좋은 지도자는 팀원들이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팀원들에게 사적으로나 공공연히 존경을 표하라. 적절한 목표들에 집중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공개석상에서 팀원들을 적절히 또한 규칙적으로 칭찬하면 팀원들은

참여하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팀원들에게 주의 깊게 친필로 글월을 보내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수년간 교회에 헌신해 온 사람들은 이러한 감사의 표현을 매우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팀원들의 고통에 민감 하라. 팀원들은 고통을 받고 배척당할 때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지도자의 민감함과 긍휼을 필요로 한다. 팀원 모두에게 그들의 일과 헌신에 대해서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라. 피터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도자의 첫째 책무는 실상을 밝히는 것이고(define reality), 최종 책무는 감사하는 것이다.”

(2면에서 계속)

현재 멕시코 사회에서는 문화 및 사회분야에서는 마약업자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징적인 문화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마약 밀매는 이제 더 이상 정치권과 경제계만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내부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와 종교에서부터 패션 영역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약문화에는 그들의 특이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구가하는 것이 바로 ‘마약 피리도’이다. 실제로 멕시코

에서 이런 노래를 한 번도 듣지 않았거나 이런 노래에 맞춰 춤을 춰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악한 영의 유혹이 속삭여온다. 코케인을 팔아,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결론으로, 종교적인 함수까지 내재된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은 단기간에 종결될 수 없다. 이슬람교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성전으로 미화하는 것처럼, 멕시코 마약 카르텔 단원들은 자신들의 마약 밀매와 살인을 포함한 폭력 행위가 바로 죽음의 성자에게 드리는 헌신이며, 인신공양이고 이를 통해 부자

가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세계관으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 국무부는 또 다시 멕시코로의 일체의 여행이나 선교를 금지시켰다. 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나 살인은 더 높은 상급을 받는 ‘종교적 헌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멕시코 현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나 단체들에 대한 중보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리고 지역의 악한 영을 대적하는 차원에서의 선교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이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큰 산의 믿음

시편 67편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은 영원한 복과 이 세상의 일시적인 복,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건강도, 재물도, 가정의 화평도 있어야 하고, 자녀들도 잘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원한 복이 절대적인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땅에서 농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복을 내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복을 선택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는가?’ 하는 자신의 자격으로 보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가고자 하였을 때에 그 형은 탕자가 오는 것을 거절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이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끝까지 나를 불행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나 나 혼자로서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요14:6).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에게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고 내가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하시는 대로 배우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믿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항상 복을 받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를 배우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갈3:6).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하여 자라서 나중에는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 하셨을 때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 아들을 살려서라도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간 것도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창12:1).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가까이하면 믿음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항상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어도 더욱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니 돕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지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은혜를 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내일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삽시다.



NEW SPIRIT MOVEMENT 출범 감사 예배

New Spirit Movement 개요

- 1.NSM의 출범 배경**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되어 가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거룩성 회복운동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따라 세상을 향해 거룩한 것만을 들고 거룩의 나팔을 불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마침내 출범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 2.NSM의 3대 핵심과 목표**
1)Holy Life 2)Holy Family 3)Holy Nations의 비전을 핵심으로, 궁극적으로는 Holy Color 시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Holy World를 만들고자 한다.
- 3.NSM의 5대 실천 방향**
1)거룩한 기도운동 2)거룩한 생활운동 3)거룩한 개혁운동 4)거룩한 생산운동 5)거룩한 나눔운동 등 이상의 다섯 가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므로 개인과 가정과 온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연락전화 (714)401-9874

New Spirit Movement 출범감사예배

일시: 2012년 2월 12일(주일) 오후 5시
장소: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박용덕목사]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사회: 윤덕곤목사[NSM공동대표]
 설교: 송정명목사[미기총회장]
 축사: 변영익목사[남가주교회회장]
 축사: 엄영민목사[O.C.교회회장]
 축사: 김영대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축사: 신중은목사[O.C.한인목사회회장]
 찬양: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 [단장: 노형진]
 축도: 윤성원목사[O.C.교회이사장]

New Spirit Movement 출범 축하 찬양 예배

일시: 2012년 2월 26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남가주빛내리교회 (714)401-9874
 주최: Global Messiah Mission / 후원: 남가주빛내리교회
 출연: 오렌지카운티여성합창단, LA메시아여성합창단
 사우스베이 메시아 여성합창단

New Spirit Movement 조직

- 고문:** 송정명목사 한기형목사 지용덕목사 한기홍목사 신원규목사 윤성원목사 정영수목사 한중수목사 민종기목사 박종대목사 박효우목사 이종은목사 양문국목사 전재학목사 윤중대목사
- 자문위원:** 오아론목사 손병렬목사 최한오목사 용창용목사 오세호목사 이성우목사 민승기목사 최정자목사 박창곤목사 노정도목사 박상목목사 남성수목사 백낙균목사 장인관목사 강윤택목사 박세현목사 김성일목사 정요한목사 고건주목사 최아브라함목사 김동호장로 정호영장로 최문환장로 김동석장로 최대영장로 김동길장로 서양운장로 손찬우집사 웬디우소장 더글라스김집사 윤재필집사
- 대표:** 박용덕 목사
공동대표: 변영익목사 엄영민목사 김영대목사 신중은목사 진유철목사 성성용목사 엄규서목사 김원락목사 이정현목사 조현영목사 송규식목사 윤덕곤목사 이호우목사
- 사무총장:** 이윤수목사
총무: 지용병목사
협동총무: 김은광목사 강양규목사 심삼은목사 광경동목사 박재만목사 이영우목사 이명환목사 임근영목사
- 서기:** 이득환목사 부서기: 박관규장로
회계: 유성곤장로 부회계: 최광호집사
간사: 박경수전도사 송섭전도사 조성우전도사

목회칼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손원배 목사 | (임마누엘장로교회)

모세가 죽은 후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는 약속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준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온갖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빠지기 쉽고 또 위험한 함정 몇 가지만 말씀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복주의의 함정입니다. 기복주의는 부모님보다는 부모님의 재산에 집착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재물, 성공, 건강 등)을 더 사랑하는 오류(誤謬)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나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수렁에 빠진 분들은 벌벌보서

3장 7-9절, 골로새서 3장 1-6절, 야고보서 1장 15-17절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세요. 말씀이 여러 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주시지 않아도 오히려 오히려 하였던 것처럼 주셨던 것을 거두어가시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둘째, 신비주의의 함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기도, 예배, 성경 읽기, 교제)에는 신비한 면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건강치 못한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가 불안한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점 보러 다니듯이 예언 기도를 받는 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

경보다 영적 체험을 더 중시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진 분은 에스겔 13장을 읽으십시오.

셋째,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지식이 많거나 기도나 봉사에 열심이 있거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수렁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신과 비교하여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진 분들은 누가복음 18장 9-14절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무 쓸모없고 소망 없던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넷째, 지성주의의 함정입니다. 사람의 이성, 자신의 사고능력을 만물의 척도로 착각하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등극하려

는 인간의 자기 우상화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진 분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거부하거나 제한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진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25절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외에도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함정들을 피하기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길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치우침 없이 말씀을 곧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내가 행통하리라"(수1:8).

푸/ 른/ 초/ 장

강승호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하나님께 소명 받은 이사야는 유다의 부패와 죄악을 한탄 하였다.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 할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자.

1.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 한 시대였다.

웃시야 왕의 죽든 해에 시작 된 내용에서 웃시야 왕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자 교만해지면서 제사장직을 월권하다가 죽고만 사건에서 주종 관계의 질서를 밝혀 준다. 소리 공해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영계에 서도 외치는 자 많지만 진리는 왜곡되고 거짓 선지자는 속출하는 황금 만능을 부르짖는 인본주의 속에 세상은 제 잘난 뜻에 산다지만 교회 직분을 명예, 치리자, 권위직으로 알지 않는지?(렘4:11-16), 또한 주의 종이려면 명예욕, 물질욕, 이성욕을 버려야 하고 종의 10계명이 있다. 자기 영광, 자기 재산, 자기 몸, 자신의 말, 자신의 지, 자기 자녀, 자기 유익, 자기 태만 버려야 하고, 절대 순종해야 하고, 오직 천직이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해 살아야 한다.

2. 정치적으로 부패했다.

웃시야는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지만 권력에 맛을 보자, 안하무인이 되어 주체 파악도 못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권력 10년, 화무 10일홍이다. 목사도 제직도 섬기는 직인데 감투 좋아하는 신자, 정치 좋아하는 종들을 볼 때 사

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면 사람 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다. 세상은 짧고 천국은 영원한데 순간을 주고 영원을 바꾸지 말자.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 없었고, 니느웨 성에 요나 한 사람으로 구원 받았다. 세상은 빈부의 격차, 도덕적 회이, 물질만능주의는 몰락의 미로를 달리는데, 헬라는 향락으로, 로마는 권력으로 망한 교훈을 잊지 말자.

3. 사회적으로 부패했다. 이사야 1장 1-10절을 보면 그 당

시 죄악상을 소돔 고모라에 비유했다. 오늘날 시대상을 보면 가치관은 설자리를 잃고 사치 향락으로 팽창하는 인간 바벨탑은 높아만 가는 암흑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쳐 줄 소명 받고 사명에 충성하는 참된 리더 선각자로 카리스마를

가진 참 목자가 요구되고 있다(롬 12:1-2).

4. 내가 보았다고 했다. 그는 신령한 눈이 뜨여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다. 세상에서 천 년만년 살 줄 알고 땅에 갇만 바라보고 분업을 망각하고 부업에 열매어 살고 있지 않는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2세 교육에 정열을 받쳤지만 언어 상실, 뿌리 상실로 동족 개념도 2세들의 정체성도 무엇인지 고민할 일이 아닌가 싶다. 신앙인이란 자성, 자중, 자각하여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경고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되자.

5. 기도하다가 신령한 눈이 뜨였다.

기도는 만능이다(마7:7. 삼상 12:23). 노아, 야곱, 솔로몬, 히스기야, 한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 등 수많은 선지 사도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다. 한국에서 개척 당시 오산리, 삼각산, 용문산 등지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던 중에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와서 힘겨운 개척자의 여로를 견고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의 나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6. 성전 안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교회건물 품 잡는 구경꾼, 갈대 같고, 유람선, 호마이가 신자 되지 말자. 떨어지면 기술 줄 알고 때 되면 뺄 줄 알고 뉘새나면 목욕해서 광내고 때 뺄 줄 알면서 고 걸 사람만 아닌 속 심령 정결케 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 다하자(렘4:22-24).

7. 자아를 발견했다. 이민 동포들 대다수가 지성인으로

로 자처 하는데 지성의 정도는 '책임과 리더십'이다. 책임이란 행동을 위해 양심이고 리더십은 자아를 깨뜨리고 겸손을 보여야 하고, 동포 사회는 사랑하고 화합하고 뭉치는 삶이다. 공수래공수거 인생길에서 동포끼리 상도의를 망각하고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닌 서로 돕고 양보하며 화합할 때 후손들이 안락하게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했지만 예수님은 산제물이 되라고 했다. 멸망 받을 나를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 그 은혜 감격하며 회개의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내 뜻보다 하나님 뜻, 내 자랑 아닌 예수 십자가 자랑, 이전에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위해 살겠다는 각오로 살아가자(갈6:14).

8. 성령을 체험했다.

세상은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인데 성령 충만해서(행26:24) 오늘도 역사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산 체험을 가지자.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닌 체험의 종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전2:4-5.4:20).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영광위해 살자.

9.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다.

동포사회의 용기를 주고 활성화 위해 물질 시간 드려 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세월은 가고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데 겸허하게 재능들을 활용하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셨다. 내 사명 무엇이든 내 달란트는 이문을 남기고 있는가? 가정, 직장, 사회, 학교, 교회에서 사명감 가지고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충성하자. 진정한 신앙과 삶의 노정은 비싼 대가가 지불된 데서 기적이 산출된다. 오늘날 풍요 속에 빈곤은 예로스, 스톨르케, 필리아 사랑보다 하나님의 법인 아가페 사랑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전13:13).

10. 고침을 받고 했다.

세상은 고침 것이 많으나 먼저 내 자신부터 고침 점은 없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견해차이 사고방식, 고정 관념을 대화와 이해로 존경이 선결되도록 상담의 폭을 넓히자. 지난 한 해에 필라교협 회장직을 수행하며 얻은 체험이다. 모든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고침 받아 샬며니즘이나 신비주의적인 광신자도 되지 말고 지, 정, 의 신앙을 확립하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다(마5:13-14).

한 시대의 부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소명 깨달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계 2:10).

소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자 이사야 6:1-10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말세는 고통 하는 시대이다. 지금 전 세계는 세계적인 가난의 문제로 고통 받는다. 물론 가난이 어제 오늘 의 문제는 아니지만 풍요의 시대에 빈곤문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고통하게 만든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과도하게 음식섭취 때문에 국민비만시대를 맞고 있다. 넘치는 영양식으로 비만해져버린 어린이들이 성인병들로 고통당하고 있다. 또한 음식이 넘쳐서 버리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머지 세계는 극한 가난의 세계이다.

Anup Shah가 2010년에 "Poverty Facts and Stats"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실 풍요로움에 익숙한 우리는 가난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다. 그런

은 배고픔과 죽음의 원인이다. 국제연합 아동기구 UNICEF에 의하면 가난 때문에 2만2천명이 매일 죽어간다. "그들은 세계의 양심과는 멀리 떨어진 지구 위에 가장 가난한 마을에서 조용하게 죽어간다"라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속한 28%의 아이들이 체중미달이다. 이들은 아시아 남부와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아래에 살고 있다.

가난은 계층 간의 차이를 심화한다. 가난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을 막는다.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가야할 7천2백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그중에 57%는 여자들이다. 21세기를 시작할 때 UNICEF보고는 10억 명의 사람들이 책을 읽지 못하고 자기 이름도 사인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문

제 생각한다. 세계 인구 중에 잘사는 사람들 상위 20%권에 사는 사람들의 85%가 수도관으로 공급된 물을 마신다. 하지만 가난한 하위권은 오직 25%만이 수도물을 마신다.

UNICEF가 2005년에 발표한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보고서는 물의 부족은 인생을 더 고달프게 함을 보여준다. 전 세계의 18억의 사람들이 물을 1km 안에서 얻는다. 그리고 하루 평균 2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영국은 한 개인이 매일 150리터의 물을 쓰고 그중에 50리터의 물은 화장실물로 사용한다. 미국은 물 소비량이 세계 1위로 매일 60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옛날 로마시대의 부유층의 상징품인 물이 오늘날도 변함없는 것 같다.

가난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치명상은 아이들의 몫이다. 2005년도 유엔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의 아동은 22억만 명이다. 그중에 가난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아이 2명 중에 한명 꼴인 10억만 명이나 된다. 보호시설이나 안전한 물, 건강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3명중에 1명은 거할만한 적당한 집이 없고 5명중에 1명은 마실 물이 없고 7명 중에 1명은 의료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학교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1억2천만명이상이

체 소비의 76.6%를 소비한다. 중산층 60%가 소비하는 것은 21.9%이고, 충격적인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20%가 소비하는 것은 불과 1.5%에 불과하다. 엄청난 불균형이다. 상위권 부유층 10%가 소비하는 것은 59%이고, 가난한 10%가 소비하는 것은 불과 0.5%에 불과하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하신 그 말씀이 현대에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고통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지만 물질적인 결핍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세계적인 영적 가난의 문제는 너무도 너무도 심각하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세대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면서도 심령은 강박적이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굳어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영적 기근의 시대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약2:5)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요즘 LA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권사님이 주일 대예배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성하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반대를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조연진 집사

A: 교회에서 주일예배 시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LA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주일예배 시에 꼭 장로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도 기도한다는 말도 들리고 과거 한국의 온누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대표기도를 집사나 성도가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로님이 기도하던 권사님이 기도하던 주일예배 기도는 상당히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성숙한 사람이 기도를 인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일 대표기도는 아무나 못하고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혹은 장로님이 안계시면 안수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일반 보통 준비되지 못한 집사나 성도가 하면 실수할 수 있기에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다.

그러나 대표기도를 꼭 장로님만이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장로교 헌법에 없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예배 모범을 보면 제8편 5장 2조에 "우리 장로회의 공식기도가 일정한 모범을 좇을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 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편 5장 2조에 보면 "공식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세는 항상

목회방침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영적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해야

경건한 태도를 가질 것이요 회중은 가급적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기뻐하여 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옛날교회가 실행하던 일요 장로교회의 예배이다. 그러나 기뻐하던지 바로 앉던지 간에 모두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없는 경우에는 담임목사가 기도하거나 안수집사나 권사가 기도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장로님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도 평신도인 권사나 집사 성도가 기도를 하면 신성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창하고 판에 박힌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다가 권사님이나 집사가 기도하면 기도가 매끄럽지는 않으나 더 순수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주일 대표기도를 하는 것은 본인에게 상당한 부담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단 대표기도에 일정한 모범을 모르고 기도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대한 예배의 예식에 은혜를 끼치지 못할 경우도 간혹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교회가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나 기도는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당회의 방침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공식예배 시에 기도할 모범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예배모범 제5장 2조를 보면 공식기도는 그 순서가 1)영광을 돌림 2)감사 3)자복 4)간구 5)간구할 근거 6)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가난의 현주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데 전 세계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0억 명이 하루 2불50센트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전 인류의 80%가 하루 10불미만으로 생활한다. 전 인류의 수입의 격차는 날마다 더 심해지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 40%의 수입을 합해도 전체 수입의 5% 밖에 안된다. 상위권에 속한 20%가 전 세계 수입의 85%를 차지한다.

Lisa Kroll은 2007년도 포브스 잡지 3월호에 "The World Richest People"라는 글을 실었다. 빛을 지고 있는 41개국의 가난한 나라 6억에 가까운 사람들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합계가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7명을 합한 것보다 더 작다고 보도했다. 나라별로 보아도 그 불균형은 현저하다. 세계 인구를 70억으로 볼 때 1/70인 1억에 속하는 선진국이 차지하는 2006년도 GDP는 세계 GDP의 76%이었다. 세계의 억만장자들 497명은 전 세계의 인구의 0.00000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부는 WGDP의 7%이다. 엄청난 부의 편중이다.

가난은 사람들의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을 일으킨다. 가난

은 전 세계 군사비용의 1%만 투자를 해도 모든 아이들이 다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도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난은 전염병과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2007년도 UN보고에 의하면 지금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AIDS를 가진 채 살고 있고, 2004년도만 해도 3백만 명이 AIDS로 죽었다. 매해 3억5천 이상 거의 5억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렸고, 1백만 명이 죽는다고 한다. 전 세계에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의 90%가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죽는 사람들의 80%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다. 가난의 땅은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간다.

가난은 물의 부족으로 고통 받게 한다. 2006년도 UN 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절반이상이 가난과 물로 인하여 고통 받는다. 11억 명이 물 공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26억 명이 기본적인 하수도 시설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산다.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수시설이 없는 곳에서 산다. 우리는 수도관을 너무도 당연하

나 된다. 2003년도 통계에 의하면 5살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1억 명이 훨씬 넘는다. 매해 1천4백만 명의 아이들이 물이나 위생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죽는다.

가난은 죽음의 그림자와 가깝게 한다. 매해 2천2백만 명이 면역주사를 맞지 못해서 죽는다. 독일이나 영국의 어린이의 숫자와 맞먹는 1천5백만 명의 아이들이 AIDS로 인하여 고아가 된다. 2007년에 UN에서 보고한 HDR(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의하면 하루에 1불미만으로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4명중의 3명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도시라고 나은 것은 없다. 도시의 빈민촌이 점차 커지기 때문이다. 2007년 Millennium Development Goal Report에 의하면 지금 세계인구의 절반가량이 도시에 산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1/3인 10억 이상이 빈민촌과 같은 조건에서 산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의 소비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2008년도의 World Bank Key Development Data and Statics는 엄청난 사실을 공개한다. 세계의 소비의 경향을 조사해보니 세계에서 잘사는 사람들 20%가 전

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오셨다(사61:1).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다(고후8:9). 물론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물질적으로 보았고개를 힘겹게 넘어야 했던 가난한 나라였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영적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세계적 가난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얼마나 좋을까?

전 세계적 가난의 편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한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가난한 민족이었던 우리에게 영육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는 역사가 세계적 가난의 현장들에 하수처럼 흐르기를 간구한다.

EM 사역자(Part-Time) 청빙

슈리포트-보쇼 한인장로교회에서는 복음주의 신앙으로 Youth 그룹을 섬길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 ○ 1.5세, 2세 사역에 소명이 있으신 분
○ 한국어와 영어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
○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 또는 2년 이상 마친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목회소견서

접수마감일 ○ 2012년 3월 20일까지.

보내실 곳 ○ Shreveport Bossi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 Elder Ho Suk Yu
○ 1180 Dudely LN Bossier City LA 71112
○ E-mail: rhs7869@hotmail.com / youngdook@msn.com
○ 전화: 교회 (318)742-3903, (318)751-2260
당회서기 (318)349-2347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Shreveport Bossi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슈리포트 보쇼 한인장로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_____ \$100	유럽 _____ \$190
	캐나다 _____ \$110	남미 _____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_____ \$190	아프리카 _____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물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물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u@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태국의 중부 크메르(CENTRAL KHMER)



태국에 살고 있는 중부 크메르족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일어났던 전쟁으로 인해 태국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다. 캄보디아와 접한 태국 동부의 국경지대를 따라 있는 난민촌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언어는 크메르어, 캄보디아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동부 문-크메르 언어이다.

대크메르제국은 9-13세기에 번성하였던 나라이며, 현재의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남부 모두 지배하던 제국이었다. 크메르 제국은 타이족과 베트남족이 크메르족을 정복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 영토가 현재 캄보디아로 알려진 지역에 한정됐다. 폭격, 내전, 베트남과의 전쟁 등이 1970년대의 캄보디아를 죽음의 땅(킬링필드, killing fields)으로 만들었다. 많은 크메르족 사람들이 평화로운 곳을 찾자 하는 소망으로 태국으로 피난했다. 그

삶의 모습

1975년 있었던 크메르 루즈 정권은 캄보디아를 거의 파괴했다. 도시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 3백만 명이 시골에 가서 노예로 노동을 강요당했다. 굶주림이 만연해, 농촌사회개혁 이상실현이라는 이름 하에 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사람들은 북쪽 태국으로 피난하기도 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라오스로 여정을 떠났으나 그들이 갈 구했던 피난처를 찾기는 어려웠다. 사람들은 옷, 집, 의약품, 음식 등의 부족을 겪어야만 했다. 태국에 정착한 크메르인들은 작

은 촌락을 형성하거나 난민캠프에서 생활했다. 거기에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소유 재산은 전무했다. 이들의 피난처는 짚으로 지붕을 덮고 막대 위에 대나무 벽으로 이루어진 집이었다.

1975-1979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사망해 크메르족은 남녀성비가 맞지 않는다. 오늘날 과부와 고아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으며 여성들은 한때는 남성의 몫이었던 책임들을 수행해야만 한다. 여성들은 색채가 다양한 치마를 입으며, 적색과 백색 체크무늬의 천이 머리에 두르는 것에서 아기들을 감싸는 것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모든 크메르족 사람들은 마을의 일에 동참하며 물을 댄 땅에 쌀농사를 짓는다. 각 마을마다 수장이 있으며, 마을들을 통합하는 정치적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을의 수장은 마을 사람들과 중앙정부

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마을의 리더십은 나눠진다. 수장은 세속적인 부분의 일에 대해 권위를 가지며 불교 승려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권위를 갖는다. 불교의 행동규범들이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크메르족은 이웃인 타이족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왔다. 역사적으로 크메르족 역시 타이족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 두 종족은 공통된 유대의 끈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크메르족 음악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반영한다. 또한 전통춤과 고전국중발레가 유명하다.

신앙

이전의 크메르왕국은 인도의 영향을 받아 힌두교와 불교를 전해 받았다. 오늘날 크메르족의 94%가 불교도이다. 그러나 조상숭배와 영혼숭배 같은 전통 민족종교의

유산은 여전히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불교의 영향으로 크메르족은 일반(涅槃)으로 가는 중도를 구하고 현세에서 공적을 쌓음으로 궁극적 평화를 추구한다. 공적은 불교 사원의 건립을 지원하거나 불교 승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불교수도원에서 공부하는 것 등을 통해 쌓을 수 있다. 시골의 소년들은 종종 불교수도원에 들어가 교육을 받기 위해 중이 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중부 크메르족은 평화를 찾아 자신들의 본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이 열망했던 평화는 태국에서도 주어지지 않았다. 중부 크메르족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소개해줄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오바마, 국가조찬기도회서 성경인용 연설

[미선라이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로서 공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워싱턴DC 힐튼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몇몇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년간의 연설에서 경제적 위기를 언급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너무 많은 이웃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나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세금혜택 등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경제적으로도 합당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로서 이는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입이 적은 노인,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학생, 생계에 허덕이는 중산층에게만 짐을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성경의 조언은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라' 가 난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아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잇달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오바마 대통령 내외와 함께 조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연방 상하원 의원,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래 매년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왔다. 지난해에는 "자라면서 거의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으나 시카고에서 종교단체와 시민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면서 "매일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과 국민

을 위해 기도한다"고 신앙고백을 했었다. 행사장 밖에서는 'DC를 점령하라'(Occupy DC) 시위가 별도의 조찬기도 행사를 무료로 개최했다. 공식 국가조찬기도회 참석비가 1인당 175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자녀 두고 새벽기도 간 한인 목사부부 구속

어린 아이를 집에 두고 새벽 예배에 참석한 애틀랜타의 대형 한인교회 목사 부부가 경찰에 체포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가 2일자로 보도했다. 애틀랜타저널(AJC) 등 지역 언론은 31일 애틀랜타 북부 한인 밀집 거주 도시인 알파레타의 S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 중인 김모(37)씨와 그의 아내 정모(35)씨가 유아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목사 부부는 지난 27일 오전 두 살배기 아기가 마루에서 울면서 배회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곧바로 구치소로 넘겨진 이들 부부는 당초 흉악범으로 기소될 뻔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미국 문화에 대한 무지로 실수를 저질렀다는 정상이 잠착돼 중범죄 혐의는 기각됐다고 지역 방송인 채널2액션이 전했다.

김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다 무엇인가가 머리를 쓰쳤다"며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 집으로 돌아갔는데 현관문이 열려있고 막내인 셋째가 사라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부모가 새벽기도를 간 틈에 집을 나선 유아는 주차장에서 이웃에 사는 여성에게 일찍 발견돼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 경찰은 신고자의 집에 보호돼 있던 아이를 조지아 주 가족아동부와 협의를 거쳐 S교회 담임목사에게 인계했다. 김 목사 부부는 주말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번 소동은 지역 신문들이 김 목사 부부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방

송사가 취재진을 현장에 파견해 주요 뉴스로 전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로버트박 선교사 미국법원에 북한 상대 소송 제기

[미선라이프] 북한 내 인권신장 촉구를 위해 2009년 말 북한에 들어간 뒤 억류됐다가 43일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30·한국명 박동훈) 선교사가 억류당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북녘동포를위한 자유와생명은 2일 "미국 출신 인권운동가인 로버트 박 선교사가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은 박 선교사에게 43일 동안 감금하며 여러 가지 극심한 고문을 자행했으며 이는 엄청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선교사는 이날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소송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뜻해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배상을 받을 경우 북한 정권의 잔혹행위와 주민탄압에 대항하는 의미로 북한정권에 저항하는 인권단체들을 돕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정보수집선 푸에블로호와 2000년 중국 엔지에서 탈북 동포를 돕다 남치된 김동식 목사, 이스라엘 거주 중 2006년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 30명 등이다. 이 중 푸에블로호에 승선했던 피해자들은 2009년에 미국 법원을 통해 북한 정부를 상대로 "11개월간 고문당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소송을 걸어 배상금 66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미 정부가 동결시킨 북한 자산을 배상비용으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2008년 6월 미국의 한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된 그는 2009년 12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겠다'고 성경을 들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다가 억류 43일 만에 풀려났다. 아직도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속사위회 말하지 못하는 그는 "북한에서 치욕스런 고문 기억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고 북한 동포가 자유롭게 되기까지 나

오지 않으려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워싱턴 주상원 동성결혼법 통과 '충격'

워싱턴 주 상원이 지난 1일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주요 지지자였던 에드 머레이 상원의원은 "결혼은 사회에서 정의하는 가족을 말한다. 결혼은 커뮤니티가 인정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커플들의 결합이다"라고 선언했다. 동성결혼 반대자로 상원 투표 현장을 지켜본 제인 스티븐슨(56) 씨는 "나는 기독교인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매우 통탄할 심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주에서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합법화 되려면 하원 투표를 남겨두고 있지만 하원 내에서 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성결혼 합법화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원만 통과하면 워싱턴 주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일곱 번째 주가 된다. 이외에 워싱턴DC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주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6월 6일까지 120,57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동성결혼 발효를 제지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11월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충분한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 당일인 6월 6일에 법안이 공식 합법화되고 동성애자들도 결혼할 수 있게 된다.

상원에서는 최종 결정을 위해 주민 투표에 부처지는 개정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전통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적대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주는 동성애자 파트너십을 인정한 2006년부터 꾸준히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넓혀왔으며, 올해 워싱턴 주에서는 서북미 지역에 분사를 둔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스타벅스 등 대기업이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그 영향을 확산시킨 바 있다.

코미컬

코미컬 - 교회 성장, 본질이 목회이다

이 책은, 교회 성장의 핵심인 코미컬 즉,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코이노니아(Koinonia)**란 우리말로 '종교, 교제, 사귄다'이며 **미션(mission)**이란 '선교, 선교' 등의 뜻이다. **멀티플리케이션(multiplication)**이란 '증식, 번식'인데, 모든 생물은 증식 능력이 있고 증식을 위해 태어난 그리스도인이거나 생령 증만한 교회 역시 생명이 있어 증식할 능력이 있고 증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두 명의 복회자와 한 명의 멘토가 여행하면서 각 여행지의 이마지들을 활용하여 도전하고 대화하며 풀어나가는 방식이며, 영리 권을 자제하며 서술하고 있다.

코미컬 - 김 집사의 목양행전

김집사라는 평신도가 대국목장이라는 하나의 소그룹에 코미컬의 영리행이 펼쳐져 풀어나가는 것을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감으로써, 적용편을 그림처럼 보며 주려고 있다.

이강천 목사

서울신학대학 동 대학원 신학박사, 서울신학대학에서 7년 교역하며 교수로 재직하였다. 경남 밀양교회, 영동중앙교회 등에서 목회를 하였으며, 기독교대한성령교회 총회 선교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버니버클리원 원장으로 목회하며, 선교사 및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버니버클리원은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감독과 세우기, 그리고 교회권 신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기성기, 구제기, 여정 편을 총 고마를 초월해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다. 저서로는 그의 생애사(1974년)를 기록한 '하나님의 전진, '천국의 종노기', '성령사역으로의 초대', '세계를 움직이는 영성, '영성예배, 그리고 자살해탈의 축복'이 있다.

● 편집: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 발행처: www.gunren.co.kr ● 주소: 서울-성동구 144-3 ● 전화: (02)747-1004 ● 불만출판사

“믿음이 리더십”으로 공동체 성장시켜라!

리더십저널, 존 맥스웰의 'BELIEVE' 머리글자에 따른 7원칙 소개

모든 사람은 격려와 칭찬을 좋아한다. 격려는 실의에 빠진 이를 고양시키며 동기부여를 한다. 격려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강점을 찾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은 긍정적 인간관계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오늘날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여 사람들을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쉽고 편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쌓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존 맥스웰 박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BELIEVE란 단어의 첫 글자를 사용하여 조언하고 있다.

성공 전에 우선 믿어라 (Believe in them before they succeed)

누구나 승자를 좋아한다. 이미 성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전에 믿어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세계 1차 대전의 영웅 마셜 폭의 좌우명을 기억해보자. “희망 없는 상황은 없다. 단지 자신에 대한 절망을 키워온 사람만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내면에 위대함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믿어주면 그들의 씨앗에 물을 주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강점에 집중하라 (Emphasize their strength)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전에 그들을 믿어주는 것은 그들이 잠재력에 도달하게 만드는 핵심 전략이다. 개인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그들이 잘한 것을 칭찬하라.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의 자질이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라.

그들의 과거 성공을 언급하라 (List their past success)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과거 성공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한 좋은 예화이다. 다



믿음 우선, 강점 집중, 자신감 주입 미래성공 시각화하고 더 큰 꿈 기대

윗이 어리다는 이유로 사울은 말리지만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종은 아버지의 양을 지켜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무리로부터 양을 빼앗으려 할 때, 저는 맹수를 쫓아 때려눕히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블레셋의 손에서 저를 구해줄 겁니다.” 다윗은 과거를 회상했다. 다가올 행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거인과 맞서 돌과 돌팔매질만으로 거인을 나무처럼 쓰러뜨렸다.

모든 사람이 과거 성공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감을 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과거에 한 훌륭한 일을 알리고 성공을 거울삼아 미래에도 성공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이 낙담할 때 자신감을 주입하라 (Instill confidence when they fail)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면 초기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수하거나 실적이 저조할 때 그들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방법은 당신의 과거 문제나 충격적 경험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 성공한 사람은 늘 그랬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신 역시 실패했고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공의 일부를 함께 경험하라 (Experience some wins together)

실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들 스스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승리는 동기부여이다. 자신의 승리를 믿게 하기 위해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업무를 하게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게 하라. 자신감이 커지기 시작하면 더 힘든 도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미래성공을 시각화하라 (Visualize their future success)

깜깜한 장소에서 쥐가 얼마나 오래 수영을 하는 지 시간을 재어 보았다. 대부분 쥐는 3분 남짓을 버티다 익사하였다.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항아리 속에 떨어뜨려 놓고 한 줄기 빛이 들어가게 했다. 무려 36시간동안 계속 살기 위해 수영을 하였다. 어둠 속에 있던 쥐보다 700배나 더 긴 시간이다. 생쥐 연구를 통해서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 물 없이는 4일, 공기 없이는 4분, 희망 없이는 4초만 살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나게 한다.

새로운 수준의 세상을 기대하라 (Expect a new level of living)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모두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독일 정치인 콘라트 아데나우어의 말이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현재 상황을 넘어 큰 꿈을 꾸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람을 신뢰할 때 그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할 수 있다.

새 책 소개

“술 마셔도 되나”

저자 김승현 목사



현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부딪치는 문제 중에서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저서도 ‘술, 술이 문제도다’라는 부제를 달았다. 전주 서문교회 김승현 목사가 최근 출간한 “술 마셔도 되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회식자리에서 기독교인이 하는 질문 ‘술 마시면 지옥가요?’에 대해 보다 근원적이고 성경적인 답을 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한인교회에 담임하고 22년 만에 귀국한 김승현 목사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야말로 술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였다. 그런 사회 속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인들에게 또 각 집회에서 마주치는 젊은이들에게 김 목사의 이 책은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책은 필자의 말처럼 성경해석 주석도 아니고 신학적인 교리 설명도 아니다. 또한 술에 대한 전문지식 서적도 아니며 술에 대해 성경적인 종합결론을 내린 책이다. ‘술로 인해 개인과 가정이 망하고 사회와 국가가 도탄에 빠지고 지구촌의 인류가 병들어가는 것을 보며 인간성 회복과 올바른 가정과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 이 책을 썼음을 저자는 밝히고 있다.

책은 1장 술을 끊었을 때의 유익, 2장 포도주는 하나님 이 주신 선물이냐?, 3장 감독과 절대 금주, 4장 술로 인한 멸망의 확증들, 5장 혼인잔치와 술, 6장 성경은 술을 허용하는가?, 7장 술은 치료약인가?, 8장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이 받은 복, 9장 종교의 금주 교리와 법, 10장 술 중독과 유해론, 11장 술과의 전쟁, 12장 금주를 위한 7계명 등 12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록으로 술에 대한 정의와 경고도 실었다.

이 책을 읽고 술을 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바벨탑을 쌓으려는가”, “공부 잘하는 지혜를 얻는 7가지 방법”,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등 19권의 저서가 있다.

총 333페이지, 콤팩트판사 발행.

(유원정 기자)

www.gospelmall.com
미주 최대 인터넷 샵몰

- ▶ 5만 여권 이상의 도서 데이터베이스, 교회 모든 용품들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 ▶ **매주 2회 항공 직수입**
- ▶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
- ▶ 현금처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인트 제도.
- ▶ Site에 올려있지 않은 서적 주문도 가능
- ▶ 구하기 힘든 서적도 최대한 구매 드림.

E-mail : gospelmall@hotmail.com으로 출판사와 최저가를 보내주세요

▶ 사용자 질문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1.800.404.1171**

교회도서부 설치전문 매주 2회씩 기독교 일반서적 항공 직수입

2012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회원 등 단체 이용 시거드립니다

2012년 미주판 다이어리 지금 주문하세요

다이어리 맞춤제작 + 최저가격 보장

다양한 디자인과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콤란(대) 콤란(중) 멘토링 하이움 아가페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멀티프로젝터

Product
2300 ANSI LUMENS 2000:1
2600 ANSI LUMENS 2200:1
3000 ANSI LUMENS 2000:1
3300 ANSI LUMENS 600:1
5200 ANSI LUMENS 1200:1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전, 집, 방안, 캠핑의 교회전송을 전문업체

E7 미가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작 바쁘고 달려진 기행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가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반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입합니다.

이중통역기

이중통역기

기독교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견해를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철저한 애드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용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포명등에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풀업가운, 성가대 인금워런, 드레스-생강영복

미공등부 저가익득! 특별개입

벨라성구사
에히드수정판
KOREAN CRISTAL PULPIT
LED LIGHT를 설치한 빛나는 장엄한 벨라성구사 특색은 다름없다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100% 수입품
KOREAN CRISTAL PULPIT LED LIGHT를 설치한 빛나는 장엄한 벨라성구사 특색은 다름없다

대만(대만)에 수입된
자이언스(대만)에 수입된
대만(대만)에 수입된
대만(대만)에 수입된

이 외에도 다양한 특색 성구사 종류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LA 음향, 영상, 포명 (213)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73. 처음이 좋았다(5)-네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다(창22:17). 아브라함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는 비유적인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의 수사법에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언급하셨다. 도대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기에 도저히 셀 수 없을 것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비교하셨을까?

육안으로는 그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었을 당시에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는 표현은 서로 대구가 되지 않는 표현처럼 보였을 것이지만 현대 과학은 하나님의 표현이 지극히 사실적임을 알게 하였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약 1천억(100,000,000,000)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마다 약 2천억(200,000,000,000)개의 별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별의 총수는 1천억x2천억 개로 1에 0이 22개나 붙은 수만명의 많은 별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큰 수를 우리는 천문학적인 수라고 말한다.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 수를 세어보면 이 수에 10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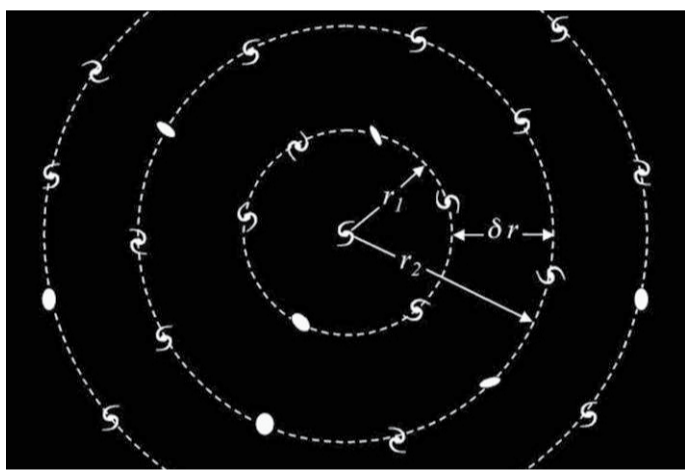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셨을까?

한 때 미국의 유명 천문우주물리학자이며 작가로서 1980년대 '코스모스'라는 TV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회의론적인 입장을 전파하였던 칼 세이건(Carl Sagan)은 이렇게 말했다. "인류는 아침 하늘에 떠다니는 먼지 티끌이다." 한 없이 넓고 큰 우주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볼 때,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지구에, 그것도 지구에 표현도 못할 만큼 작은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우주에서 먼지 티끌로도 표현할 수 없이 작은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또 "만약 다른 생명체가 없다면 우주는 공간을 낭비하고 있

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세이건은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외계 지적존재 탐사) 프로그램에 미국 정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조장한 장

지구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가 아닌 우주의 중심 땅을 비취게 하는 별 많을수록 인간 귀중함 커져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곳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해 있는 은하들의 중심이기도 하다.

본인이기도 하였다.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우주의 크기와 규모만을 생각하여 이 우주 안에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들이 부지기수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구에서 가장 진화된 존재인 사람보다도 더 진화한 된 존재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는 무신론적인 진화론에 근거한 상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현실성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엄청나게 큰 우주와 수많은 별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신 이유를 "땅에 비취게"하려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땅은 사람이 살게 하려는 것이었다(사45:18). 그렇게 많은 별들을 지는 이유들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중요성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귀중하게 된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우주가 크면 클

수록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려는 셈이 된다. 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덩달아 위대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셨을 것이다.

창조 4일째 하나님께서는 공장에 광명이 있게 하여 땅에 비취게 하시고, 주야를 구별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고, 4번째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다. 이 공장은 대기권을 말하기도 하고 우주 공간을 말하기도 하므로 문맥에 맞추어 읽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기권을 말하기도 하고 우주 공간을 말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공장을 새가 나는 대기권이라고 단정하고 하나님께서 대기권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는 성경 기록은 사실 기록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주장하려는 태도로 바른 해석

이 아니다.

창조 4일째의 사역 중에 태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에너지를 내는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마디 "또 별들을 만드시라"는 말로 설명을 끝내버린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작고 작은 지구에 빛을 보내서 낮과 밤, 진동과 계절, 날과 해(years)가 바뀌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있었다.

빅뱅을 믿는 진화론자들이 주장 하듯이 지구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가지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행성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우주에서 오는 빛들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지구는 특별한 곳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곳이다!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창조 4일째 사역을 마치시고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지구에 빛이 비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로 말씀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구에서 빛을 보게 될 하나님의 행상들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행간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셨던 이 좋았던 처음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다음호에 계속)

전/강/칼/럼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 정신건강 상담가)

소리없는 조국 사랑

운전 중에 아이가 "하나, 둘, 셋, 넷..."하면서 세고 있었다. 그리고 외쳤다. "아빠, 아빠, Korean Car 저기 가요!" 어떤 때에는 앞과 뒤, 그리고 옆의 차들이 모두 한국 차들이다. 뿌듯했다. 아이도 참 기뻐했다. "Hyundai Elantra, Santa-Fe, Kia Sedona..." 등을 소리치면서 읽었다. 벌써 15년 전의 일이 되버렸다.

그 당시만 해도 TV 등 일본의 성능 좋은 전자제품 등을 사서 귀국하는 일부의 유학생 부부들이 주변에 있었다. 안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한국에 가서 국산 제품들을 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다.

그런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IMF 기간 중에 유럽을 방문하셨다. 그곳에서 사진기를 하나 마련하려고 백화점을 찾았다고 한다. 그분은 다른 나라의 사진기 제품에 아랑곳 하지 않고 삼성에서 만든 사진기를 샀다고 한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제품을 애용하여 삼성이 수익 자원으로 재투자하여 기술을 향상시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다고 한다. 우리의 한국의 삼성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셨다.

필자의 주변에도 조국을 사랑하고 위하여 위상을 높이는데 소리없이 기여하는 평범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전부터 가급적 한국산 차와 제품만을 산다고 하셨다. 하나같이 우리의 제품을 사서 경쟁력을 높여게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었다. 고장이 잦거나 애프터서비스 등 불편한 점을 감수할 각오들도 보이셨다. 단지 진정으로 조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그분들의 조국을 향한 마음이 다행히 좋은 결실로 나타났다. Korea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필자가 1990년도에 현대차를 구입할 때 한국 차를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다. 모두들 피해자의 목소리였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 당신들의 과거의 한국 차 구입이 오늘의 한국 차들이 있게 한 원동력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당신들의 한국산 차 구입이 결국 기업의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기술 개선이나 향상도 소비자로서 문제를 지적해 준 결과임...

물론 국제화 시대에 이러한 발상이 어긋나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단지 우리의 조국의 제품들이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경쟁력을 높여게 돕자는 데 있었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서 우선의 고려의 대상으로 만들자는 데 있었다.

한일 월드컵 대회, 월드컵 야구대회, 올림픽, 그리고 각 종 스포츠 행사에서 우리 조국의 아들과 딸들이 좋은 성적을 보여서, 우리 조국,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이제는, 주변의 타 민족인들이 Korea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인다. 필자의 직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한국산 차나 전자 제품과 전화기 등의 제품에,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매혹된 듯 했다. 한국 음식에 관해서도 호기심이 많다. 한국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 주곤 한다. 최근에는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한국 식당을 다녀왔다고 하는 주변의 동료들도 늘어났다.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 Korean-American의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요구되는 의무감도 있는 듯 하다. 앞선 시민 정신으로 훌륭하고 매력적인 Korean-American으로서, 타민족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조국사랑, 소리 없는 조국 사랑이 계속 되리라 믿는다. 아이도 자기가 Korean-American에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 한국말은 서투르기는 하지만 말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김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윤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4:00</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4:00</p>	<p>델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00</p>	<p>풍고매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빅스카운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미국) 수요 3부 예배: 오후 7:00(미국)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맨얼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4부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4:45 EM 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3:00(월-토)</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4:00 새벽기도회: 오전 4:00 새벽기도회: 오전 4:00</p>	
<p>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2:50</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한국) 수요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4부 예배: 오후 7:00</p>	<p>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4:00(월-토) 목요일: 오전 8:30</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4: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4:00(월-토)</p>	<p>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00 수요 5부 예배: 오후 2:00 수요 6부 예배: 오후 7:00</p>	<p>앨파소델린교회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30</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수요 3부 예배: 오전 10:30 수요 4부 예배: 오전 2:30 수요 5부 예배: 오후 8:00 수요 6부 예배: 오후 8:00</p>	
<p>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영양강화: 오후 8:30</p>	<p>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함세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8:0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4:30(월-토)</p>	<p>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3부 예배: 오후 7:00 목요 예배: 저녁 8:00</p>	<p>큰문리교회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일)</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수요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4부 예배: 오후 2:00(월-토)</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4: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4:00(일)</p>	
<p>탬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한국) 수요 3부 예배: 오후 10:50 주일 4부 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 예배: 오전 7:00(한국)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일)</p>	<p>하트포드재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란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4: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4:00(일)</p>	<h3>하와이지역</h3>		<p>아가페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4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일)</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영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00 수요 5부 예배: 오후 7:00 수요 6부 예배: 오후 8:00</p>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제 4 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본부(GIM, 대표 정윤명 목사, 월넛크리치아이 엠교회 담임)가 주최한 제 4회 올네이션스 연합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지난 29일 오후 6시 30여 다민족 400여 명의 다민족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넛크리치에 위치한 Hillside Covenant(담임 Jeff Reed) 교회당에서 열렸다.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강사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

미국 교회, 학교, 사회, 정부, 젊은 세대를 향한 영적각성, 미국 캠퍼스 복음화 추구와 함께 사회적 이슈 등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보호를 추구하는 미국의 회복 10개 문헌의 ‘미국회복선언’ 발표가 있었다.

이번 올네이션스 중보기도 컨퍼런스에는 많은 미국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이란, 라틴(멕시코, 파나마, 페루, 칠레, 아

르헨티나 등),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아메리칸, 피시픽아일랜드(사모아, 피지, 괌, 하와이, 통가) 등 베이 지역 30개 민족이 참가한 가운데 각국이 직면한 심각한 기

도제목들과 영적회복을 위한 영상 발표가 있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시85:6)라는 주제로 본 컨퍼런스에서는 열방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박세록 장로(SAM Care대표)와 Suzie Park EM대표는 단동(丹東) 병원사역의 현황과 함께 북한의 주민들의 고통을 전하면서,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영양죽 보급실상을 전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면

서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함께 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중국, 유럽 등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열방의 회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면서 30여 다민족 목회자들은 강단으로 나아가 함께 손을 잡고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 연합기도를 드렸다.

이날 컨퍼런스를 위해 정윤명 목사(명성교회)의 특별 찬양과 Joy of Yahweh worship Dance도 있었다.

이날 특별메시지는 Jeff Reed 목사(Hillside Covenant Church)가 창세기 11장을 본문으로 “모든 민족들이 언어와 문화와 피부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연합 협력하고 나눴을 실천을 통해 미국과 열방의 회복에 힘쓸 것”을 역설했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환영 인사말을 전하며 제 5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 6월 17일(주) 크로스웨이교회(담임 민봉기 목사), 제5회 글로벌다민족 콘서트, 제8회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회: 9월 22일(토)-23일(주) 산호세의 Iran Christian Church(담임 Kamil Navai 목사)를 광고하며 한국 교계 및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새회장에 김미선 교수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 수석부회장에 조성환 목사 선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황성삼)는 2012년도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를 5일 저녁 6시 한인 타운 내 만리장성 식당에서 열고 신임회장 김미선 교수(국제개혁대학교)를 선출했다.

황성삼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정기총회는 서기선정, 회원 점명, 개회선언, 사찰선정, 회순통과 등으로 진행됐으며 임원선거 결과 △회장에 김미선 교수 △수석부회장에 조성환 목사 △부회장에 엄인용 선생을 각각 선출했다.

김미선 신임회장은 “1년이라는 회장 임기동안 열심히 봉사해서

회음악협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환 수석부회장은 “교수사역과 목회활동 등으로 회장을 보좌하는 수석부회장 자리가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최선을 다해 회장을 도와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가 열리기 전에 가진 개회예배는 황형정 총무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김미선 수석부회장이 기도, 조성환 목사가 요한복음 7장 8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백경환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취임사에서 빈센트 김 취임회장이 박상원 이임회장으로부터 LA재단 기를 전달받고 있다.

“대대로 한인 자긍심 갖도록 하겠다”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취임식, 빈센트김 새회장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취임식이 1일 오후 6시30분 가든스윗 호텔에서 열려 빈센트김 변호사가 회장에 취임했다.

이경희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오상철 목사(이민신학 연구소장)의 개회기도, 국민의례, 변영의 목사(남가주교회회장)의 환영사, 빈센트김 취임회장의 취임선서, 취임패와 공로패 수여, 이임회장 인사말, 취임사, 이사장 취임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가 다니엘서 1장 8-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임용권 전 오리곤 주하원의원의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취임식은 박영창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빈센트김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생각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된다. 앞으로 미주한인의 날을 한인사회에 더욱 알려 코리아나 메리컨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미주한인의 날을 1세는 물론 1.5세와 2세, 3세, 4세대까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크리스찬헬스케어재단 임원들이 기념촬영.

사업 통해 얻는 수익, 재단에 환원 크리스찬헬스케어 재단설립...무보험자들에게 희소식

크리스찬헬스케어재단(이사장 변영의 목사) 설립 기자회견이 6일 오전 복음방송에서 열려 본 재단에 대한 홍보와 함께 사역을 소개했다.

이사장 변영의 목사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도 많은 수가 비싼 보험료로 인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무보험자들이 많다. 본 재단에서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한인들이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티나정 사무총장은 “본 재단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사역과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재단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개인의 이익이나 생각이 아니라 초교파, 범교파적 재단이다. 크리스천이 먼저 시작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과 타민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3년간 목회자 무료검진을 위

해 300여명을 한국으로 보내 치료를 받는 건강보험과 플랜을 마케팅해 오던 헬스케어는 근본적인 헬스 플랜의 개발과 홍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비영리단체를 설립,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본 재단은 이사장 변영의 목사를 비롯해 좌영진 목사(파워뉴스대표), 박세현 목사(예수교회), 양경선 목사(벤엘장로교회) 등이 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사로 민종기 목사(충현선교회),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주창국(아버지학교 미주본부장), 황선철(남가주CBMC 회장), 노경진 선교사(월드비전),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섬긴다.

한편 크리스찬헬스케어재단에서는 프라임케어(Prime Care)와 크리스찬케어(Christian Care) 플랜을 준비해 보다 부담 없이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www.PrimeMS.net 또는 (213)384-321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연목회 총회를 마치고, (왼쪽부터 5번째가 회장 정요한 목사)

남가주연목회 12대 회장에 정요한 목사 정기총회, 수석부회장에 김영일 목사 선출

남가주 연세동문목사회(연목회)는 지난달 31일 로텍스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정요한 목사를 선출했다.

김영일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이원열 목사의 설교, 정요한 목사 대표기도, 김영일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어 총회를 통해 정요한 목사(미주베델교회)를 남가주 연목회 1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 김영일 목사(햇빛선교회) △부회장에 박종대 목사(남가주중앙교회), 김기동 목사(충만교회), 류재덕 목사(연약교회) △총무 고재원목사(샘솟는교회) △서기 김철 목사(한마음교회)를 각각 선출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정요한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미국 베다니신학대학원에서 종교교육학박사 학위를 받

은바 있으며, 미주기독교문인협회 회장,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 지난해는 남가주한인목사회 총무를 역임한 바 있다.

연목회는 연세대학교 출신 목회자로 박광철 목사, 유진소 목사를 비롯한 남가주에 60여명이 목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 연목회)

서부아프리카 식량위기 경고 월드비전, 3월부터 위기사태 예상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로 알려진 동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를 포함한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수급 악화가 새로운 기아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월드비전이 경고했다.

서부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말리는 예년보다 훨씬 낮은 강수량과 부족한 식량 보유량으로 인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니제르는 인접하고 있는 리비아와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 정으로 인하여 자국 출신 노동자들이 강제로 귀국하면서 식량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밖에 중자 씨앗의 부족과 가축

손실,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곡물가격 그리고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 등이 이 지역의 식량 수급 전망을 계속 어렵게 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동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와 같은 대규모 기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국 사회가 재빠르게 구조화해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새끼 새끼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usa@samcare.org, socho@samcare.org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usa@reformeduniv.org
TEL: (714)796-8800 FAX: (714)796-8804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영을 결정합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례,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케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경도용 볼펜수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ce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익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유통업

2727 W. Olympic Blvd., #105 Los Angeles CA 90006 www.lifebook.co.kr
TEL: 818-886-4400 Fax: 818-886-4404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5

세계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전송 후원을 받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동부교계 기사판



장영춘 목사 원로목사 추대식

킨즈장로교회 개척 설립자인 장영춘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식이 오는 26일(주) 오후 5시 30분 동 교회당에서 열린다. 킨즈장로교회는 지난해 12월 박규성 목사의 담임목사 추대식을 가진 바 있다.

▲문의: (718)886-4040

KCBN 후원을 위한 탁구대회

제 1회 KCBN(미주기독교방송) 후원을 위한 미동부 탁구대회가 2월 5일부터 시작됐다. 교회단체예선 리그는 2월 12일(주) 오후 5시 뉴욕탁구장에서 시작된다. 결선은 19일(주) 오후 4시에 있으며 시상식은 당일 오후 10시. 목회 단체 및 개인전은 20일(월) 오후 1시에 있게 된다. 참가비는 개인 20달러 단체 100달러이며 각조 1, 2, 3 등 트로피와 상품이 있다.

▲문의: (718)463-1700

요한계시록 부흥성회

만국교회(담임 김희복 목사)가 12일(주)부터 3일간 요한계시록 부흥성회를 갖는다. 강사는 김엘리아 목사(워싱턴 주기도문교회 담임). 일정은 12일 오후 7시, 13일부터는 오전 10시와 오후 8시 2회씩 하게 된다.

▲문의: (646)270-9037

뉴욕기독교부합창단 반주자 모집

뉴욕기독교부합창단(단장 소유영)에서 반주자를 찾고 있다. 정규음악대학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교회 찬양대와 합창단 반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력서를 보내면 된다. 결혼한 부부가 같이 오면 더 좋겠다고. 연습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10시. 오는 9월에 제 11회 정기연주회를 예정하고 있다. 소정의 사례를 한다.

▲문의: sobello@gmail.com

“예수증인으로 빛과 소금 역할 감당”

PCA한인동북부노회 첫 정기노회, 노회장 오태환 목사

미국장로교(PCA) 한인동북부노회(노회장 오태환 목사)가 한인노회 설립 후 지난 7일 제1회 정기노회를 가졌다. 노회장 오태환 목사는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3개 주의 위치한 한인교회들의 부흥 확장을 위해 지난해 총회에 신청하고 허락받은 후 첫 노회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동북부노회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타 교단의 본이 되는 노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회원들의 동역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1부 예배는 오태환 목사 사회로 기도 구자범 목사, 특송 문은연 집사, 설교 박치순 목사, 노회장 환영 인사 오태환 목사, 축사 테일러 로이 목사(총회서기), 축도 강세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치순 목사(뉴욕남교회 원로)는



PCA한인동북부노회 설립축하차 방문한 축하객들과 소속회원들

“노회의 시작”(행15:6-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1907년 평양장대현교회에서 배유지 목사를 첫 노회장으로 한국 장로교 노회가 시작돼 27년 만에 31개 노회로 발전된 상황을 설명하며 “일제 치하와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나온 노회들이 현재 100여 교단으로 성장했지만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로가 양무리의 본이 되며 예수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수 교수와 친구들이 노래하고 있다

“박인수 교수와 음악친구들” 초청 자선음악회

뉴욕목사회-뉴욕교협 주관,기부금 수여시간도 가져

뉴욕목사회(회장 김승희 목사)와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이 주관한 “박인수 교수와 음악친구들” 초청 자선음악회가 지난 5일 저녁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박인수 교수는 철수를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노익장을 발휘했다.

오영아 미주기독교방송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에서 김승희 목사는 “박인수 교수님과 음악친구들이 수퍼블을 이겼다”며 “이 음악회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원들이 수고 많이 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인사했다.

박인수 교수는 시종일관 즐거운 가를 받으며 2시간 동안 “나같은 죄인 살리신” 등 성가곡, 목련화 등 한국가곡과 새타령 등 민요, 임당수 뱃소리 등 판소리, 오솔레미오 등의

국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제자들과 함께 청중들을 압도했다. 또 박인수 교수에게 “돈을 벌게 해준” 향수와 사랑의 테마도 불렀으며 제자들은 토스카와 베르디, 마적 등 오페라의 아리아도 불렀다.

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기부금 수여 순서가 거졌다. 뉴욕교협 양승호 회장이 KCS뉴욕한인봉사센터(회장 김광석)와 뉴욕나눔의 집(배영란 권사), 만국교회(담임 김승희 목사)가 탁발난민정착지원선교회(뉴욕대표 김영란 선교사)와 농아인선교회(대표 채진희), 장학생(목회자 자녀 2명, 일반 2명)에게 각각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헌금기도 이품삼 목사, 광고 김희복 목사, 축도는 김남수 목사가 맡았다.

(유원정 기자)



KAPC동부목사장로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이는 용기를 가지라”

KAPC동부지역목사장로기도회, 강사 정재훈 박사부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가 지난 6일부터 3일간 필라 벅스카운티장로교회(담임 김풍운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이는 용기를 가지라”는 주제로 정재훈 박사(데이코 우주개발사 사장,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장로)와 정정숙 권사 부부를 강사로 열렸다.

첫날 개회예배는 김풍운 목사(준비위원장) 인도로 기도 국납주 목사(뉴욕남교회), 개회사 조영길 목사(총회 교육부회), 특별찬송 이재철 목사(필라노회), 설교 정재훈 장로, 합심기도 이규성 목사(뉴욕동교회), 축도 강기봉 목사(총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34년 전 돈 한푼 없이 미국으로 이민 온 정 장로부부는 그때부터 오렌지카운티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정 장로는 시간당 4불을 받는 말단으로 데이코 우주개발사에 들어간 후 22년 만에 경영권을 인수해 사장이 됐다. 현재 정 장로의 회사에서 만든 로켓 열조장정치를 장치를 하지 않고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없다.

정 장로는 “말씀을 잡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행통의 축복이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강권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장로는 쉐린저와 콤폴트비야호의 사고를 해결한 경과와 간증을 곁들여 전했다.

남편 정재훈 장로에 이어서 간증과 말씀을 전한 정정숙 권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우에 내놓으시면 사단에 얻어맞아 고생하고 형편 없이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 인생의 지침서로 주셨다. 매뉴얼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실수와 실패가 없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각은 다 죄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그렇기에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권사는 “신학공부를 하고 목회 길을 생각했는데 평신도로서 목사가 힘든 곳에 가서 힘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다. 아주 시골이라도 불러주면 가서 말씀을 전한다. 집회를 통해 성도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NJUCA 후원의 밤과 “하나님의 학교” 출판 기념회 모습

미래 크리스천리더 양성에 동역 당부

NJUCA고등학교 후원의 밤 및 출판기념회

뉴저지 중부에 위치한 크리스천 학교인 NJUCA고등학교(이사장 신정하 장로, 교장 Donna Torres, Dawn Fossnes)와 학교 후원회 Friends of NJUCA(사무총장 정승화)는 지난 4일 오후 6시 뉴저지 포트 더블트리 힐튼호텔에서 350여명의 후원회 회원들과 뉴욕, 뉴저지 교회협의회 여러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저지유나이티드 크리스천아카데미 후원의 밤과 ”하나님의 학교(저자 신정하 장로) 출판기념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신정하 이사장은 그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도와주신 후원회 회원들

과 교계 목사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위하여 함께 동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발전 계획에 필요한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자들의 약정식이 진행됐고 아울러 신정하 이사장이 NJUCA학교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하면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간증 식으로 저술한 “하나님의 학교” 출판 기념회가 같이 열렸다.

(기사제공: NJUCA)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동부(NY, NJ) 교회안내</h2>				<h3>기쁨과 영광교회</h3> <p>담임목사: 권희수 교역목사: 김태민 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11:30 세례기도: 오전 8:00(월-목) 기도회: 오후 6:30(월-목)</p> <p>Tel: (718) 338-7828, 4180, Fax: (718) 338-8777 41-41 41st Ave, Flushing, NY 11355 E-mail: jgchurch@earthlink.net</p>		<h3>낙원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전 8:00 김장전담회: 오후 8:45</p> <p>Tel: (718) 338-7728, Fax: (718) 338-6621 41-20 41st Ave, Flushing, NY 11354 E-mail: ny2002@earthlink.net</p>							
<h3>뉴욕셋새마리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 기도: 오후 8:00 세례 기도: 오후 8:00</p> <p>Tel: (718) 226-2266, Fax: (718) 226-4867 42-78 130th St, Flushing, NY 11355 www.setsai.org</p>		<h3>뉴욕복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재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후 8:00</p> <p>Tel: (718) 281-9198, Fax: (718) 281-8433 42-28 130th Ave, Queens, NY 11354 www.bokan.org</p>		<h3>뉴욕필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전 8:00(월-목) 수요예배: 오전 11:00</p> <p>Tel: (718) 281-1977, Fax: (718) 281-1961 2 Beacon St, Flushing, NY 11354</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광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후 8:00</p> <p>Tel: (718) 281-3107, Fax: (718) 281-3111 42-04 132 St, Flushing, NY 11354</p>		<h3>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3>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찬양기도: 오전 6:30(월-목)</p> <p>Tel: (718) 281-7838 / Ch: (718) 281-8777 42-46 132 St, Flushing, NY 11354 www.andyok.org</p>		<h3>뉴욕 중부교회</h3> <p>담임목사: 김계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전 8:45(월-목)</p> <p>Tel: (718) 281-7838 / Ch: (718) 281-8777 42-46 132 St, Flushing, NY 11354 www.nycentral.org</p>		<h3>뉴욕초대교회</h3>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후 8:00 찬양기도: 오전 8:00(월-목)</p> <p>Tel: (718) 281-3221, Fax: (718) 281-4376 42-18 130th Ave, Queens, NY 11354 www.churchofgod.org</p>	
<h3>뉴욕효신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라 14부예배: 오전 7:15 24부예배: 오전 8:30 34부예배: 오전 10:15 44부예배: 오전 12:30 54부예배: 오전 1:30 64부예배: 오전 3:30 74부예배: 오전 7:30 84부예배: 오전 8:30 세례 기도: 오후 8:00(월-목)</p> <p>Tel: (718) 797-8756, 8225, Fax: (718) 797-3111 42-12 130th St, Flushing, NY 11355</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월-목) 세례 기도: 오후 8:00(월-목)</p> <p>Tel: (201) 342-8100, Ch: (201) 342-8104 309 Route 22, Hackensack, NJ 07601</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철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전 8:00</p> <p>Tel: (718) 281-7171, Fax: (718) 281-3621 27-47 134 St, Flushing, NY 11354</p>		<h3>봉아일랜드성경교회</h3> <p>담임목사: 김계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전 8:00</p> <p>www.bibleland.org Tel: (718) 222-7797, Fax: (718) 222-4284 126 Edison Ave, Newburgh, NY 11960</p>		<h3>헤다니교회</h3> <p>담임목사: 장종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후 8:00 찬양기도: 오전 8:00(월-목)</p> <p>Tel: (302) 424-3800, Fax: (302) 424-3800 420 Main St, Fort Lee, NJ 07024(우편지)</p>		<h3>어린양교회</h3> <p>담임목사: 김수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후 8:00</p> <p>Tel: (718) 281-8208, Fax: (718) 281-8433 62-18 47th Ave, Woodside, NY 11377</p>		<h3>유니온연합리교회</h3> <p>담임목사: 박재열 1부 기도회: 오전 8:00 2부 기도회: 오전 8:30 3부 기도회: 오전 10:45 4부 기도회: 오전 12:30 5부 기도회: 오후 8:00 6부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 오후 8:00</p> <p>Tel: (732) 298-0444, Fax: (732) 298-0284 461 W. Street Ave, Newark, NJ 07102 E-mail: nyunion@earthlink.net</p>	
<h3>주비전교회</h3>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1부예배: 오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p> <p>Tel: (718) 797-8804, Fax: (718) 797-3111 70 Flushing Rd, Flushing, NY 11355</p>		<h3>주신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후 8:00</p> <p>Tel: (718) 210-7981, 7980 168-12 72nd Street, Queens, NY 11355</p>		<h3>중부뉴저지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p> <p>Tel: (732) 410-2622(Ch), Fax: (732) 227-8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h3>킨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장영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2:00</p> <p>Tel: (718) 281-4540, Fax: (718) 281-7788 462-17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 www.kinz.org</p>		<h3>킨즈한인교회</h3> <p>담임목사: 이규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00(14)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전 11:3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후 8:00</p> <p>Tel: 718-472-1180 88-06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inzeok.com</p>		<h3>한마음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아아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전 8:30(월-목)</p> <p>Tel: (914) 277-1103, Ch: (914) 277-0104 79 School St, Great Neck, NY 11022 E-mail: nyoneheart@earthlink.net</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h3> <p>L.A.: Tel: (323) 686-0009 Fax: (323) 686-0048 E-mail: nyoneheart@earthlink.net N.Y.: Tel: (718) 686-0009 Fax: (718) 686-0074</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h3>		<h3>브라질 서울교회</h3> <p>담임목사: 허재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 기도: 오전 8:00</p> <p>Tel: (527)-1485, Fax: 527-8543 Rua Augusta 154, Centro A, Paulo Cep 01229-012</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전 8:00</p> <p>Tel: 011-55-11-2070-8222, 8277-3142 R. Lúcio Alves 11 Liberdade CP CEP 11069-010</p>		<h3>브라질 새소망교회</h3>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전 8:00</p> <p>Tel: (51) 3602-8754, 8695-1165 RUA SANTA RITA, 102-142-840 FAZD-0-5842C</p>		<h3>아르헨티나 재민교회</h3> <p>담임목사: 최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54) 114-635-7788 AV. CABAÑO 1023 CAP.FED., B.B.A.A.,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담임목사: 황이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8:00 세례 기도: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56) 277-7628, Fax: (56) 277-0104 Santiago Centro - 3 Calle 325 Chile E-mail: nyoneheart@earthlink.net</p>		<h3>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3> <p>선교사: 임재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8:00 (1, 2, 3부 소제례식)</p> <p>Tel: (596) 271-574-6883 E-mail: nyoneheart@earthlink.net Carvertono RD. 1001, Asuncion-PARAGUAY</p>	

5백여 한인참여 한인타운선거구 통합촉구

LA시의회 선거구재조정 2차 공청회...12일 가두행진

LA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지난 1일 한인 타운 내 월셔빌 극장에서 500여명의 한인들을 포함 각 커뮤니티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한인 타운 지역을 여러 구역으로 분리해 놓은 재조정 초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한인 타운 선거구 통합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 공청회 시작 이전부터 삼삼오오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며 공청회장인 월셔빌 극장 입구에 마련된 LA 한인 타운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명지에 서명하는 등 한인 타운의 선거구 단일화의 의지는 지대했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한인들뿐 아니라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및 기



LA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관련 2차 공청회에 참석한 한인들이 단일화 지지서에 서명하고 있다.

타 아시아계 커뮤니티 주민들도 남북으로 올림피크/12가-멜로즈, 동서로 버몬트-웨스턴을 경계로 한 '월셔센터-코리야타운' 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단일화 할 것을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 촉구했다.

한미연합회와 PAVA 등 한인 단

체들은 '월셔센터-코리야타운을 하나의 선거구로 유지하라'고 쓰인 어깨띠 700개를 제작해 이날 공청회



2012 영적전쟁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김정한 선교사.

부모는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역할 커

글로벌선교교회 영적전쟁세미나, 강사 김정한 선교사

글로벌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는 본 교회 양육훈련사역원 주최로 지난달 26일부터 김정한 선교사(선미나스트리 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2012 영적전쟁세미나'를 개최했다.

2일 저녁, '가정에서 진행되는 영적전쟁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미나에서 김정한 선교사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시대마다 다르다. 영적전쟁은 세대를 넘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한계가 있다. 1주일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 두세 시간 정도이다. 나머지는 가정에서 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파송한 선교사이다"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세대적인 책임이라 여기지 않았기에 오늘날 미국은 물질주의사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며 한인 타운 단일화 주장을 펼쳤다. 공청회장에서는 한인들과 함께 타 인종 참석자들도 어깨띠를 두르고 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변영의 남가주교회장은 "이번 공청회를 위해 교회에서 한인 타운의 여러 교회 목회자들을 방문하여 한인 타운 선거구 단일화 서명 운동에 협력을 요구했고 많은 호응이 있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서명에 동참하고 공청회에도 적극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일(주) 오후 2시에는 한인 타운 월셔와 베버리 사이 웨스트턴 가에서 한인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가두행진을 겸한 기도회를 갖는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New Spirit Movement 출범 감사예배

New Spirit Movement(대표 박용덕 목사) 출범 감사예배가 12일(주) 오후 5시 남가주빛나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401-9874

태평양서남지방회 한인제자회

2012년 첫 번째 태평양서남지방회 한인제자회 모임을 오는 18일(토) 오후 5시30분 새길 크리스천교회(담임 박소영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818)903-4455

미주갈멜산기도원 개원예배

미주갈멜산기도원(원장 조성근 목사) 개원예배 및 기념기도성회가 개최된다. 17일(금) 오후 7시30분에 시작되는 기념성회는 23일(목)까지 진행되며 개원예배는 19일(주) 오후 5시에 드린다. 기도원 주소 3123 W. 8th St. #210 LA, CA 90005
▲문의: (818)306-4912

또감사선교교회 탁구교실 오픈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옥 목사)는 탁구교실을 개강한다. 오는 21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아크홀에서 진행된다. 탁구선수 출신 최영훈 집사가 강사를 맡는다.
▲문의: (323)225-9191



미주크리스천문협에서 신년하례 및 특강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주크리스천문협 신년하례 및 특강

박요한 총장 '문장의 작법' 강의

미주크리스천문협(회장 정지훈 목사) 2012년도 신년하례 및 특강이 지난 28일 오전 11시 작가의 집에서 열렸다.

정지훈 목사의 사회로 김영창 목사(효사랑선교회 회장) 대표기도, 최학량 목사(새창교회 원로)가 설교했다. 소프라노 김정화 씨의 찬

양에 이어 등단한 최 목사는 마태복음 5장 13-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맛과 맛의 작법'이란 주제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심혈을 경주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열정을 다해 쓴 작품을 읽게 된다. 그리고 작품 속에 살아 움직이면서 영혼의 참된 맛과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빛이 비취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2부에서 박요한 총장이 '문장의 작법'이란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강의했다.

는데 김진욱 선교사와 박용영 선교사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김에스터 선교사는 A국 선교사로 파송됐다. 이날 예배는 정교영 목사(미주총회대학교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남가주목사회원 52명 생명말씀 수록

"사랑의 하나님" 설교집 출판기념감사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 설교집 "사랑의 하나님" 출판기념식이 5일 오후 5시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감사예배는 김영모 목사(목사회 수석부회장) 사회, 김종태 목사 기도, 정준용 목사 성경봉독, 석태운 목사(경중총회회장)의 설교로 진행했다.

석목사는 "영혼의 등불"(시 119:105)이란 제목으로 "목사들이 피눈물 나게 원고를 준비해 말씀을 전해도 영혼이 기뻐 뛰며 춤추는 모습은 보기 힘든 세대이다. 이러한 때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책으로 묶여 출간된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출판기념식을 통해 박효우 목사(남가주 목사회 직전회장)는 "이민목회의 애환 속에서 나온 설교에는 맑고 눈물과 생명이 담겨져 있다. 이 귀한 책을 많은 목사님들이 애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설교집 출판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한 정요한 목사는 "지난 7월에 출간을 결의하고 6개월 동안 준비해 만들어졌다. 편집위원으로 수고한 목사님들과 52분의 목사님들께 감사한다"며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위해 웨퍼드 찬양단의 축하찬양과 박용덕 목사(직전 OC교회회장)의 축사가 있은 후 김영대 목사(목사회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새로 출간된 설교집에는 남가주에 있는 52명의 목사들의 설교가 수록돼 있으며 LA 다운타운의 전경이 표지에 삽입돼 있다. 본 설교집은 미국 각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언론사나 신학교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남가주리디머교회 설립3주년에배 및 임직식

캄보디아 2명, A국 1명 선교사 파송식도 가져

남가주리디머교회(담임 김요섭 목사)는 교회설립3주년에배 및 임직식을 5일 오후4시에 거행했다. 김요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안국련 목사(열매교회 담임)가 기도를,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담임)가 성도의 구할 것 두 가지(고전16:8-9, 고 6:11-13)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열린 임직식에는 삼장로에 임진조 △명예장로에 김태균 △안수집사에게 이덕영 △권사에게 이귀례, 황정자씨가 취임을 했다. 이날 임

직식에서는 윤성원 목사(오렌지한민교회 원로)가 권면 및 축사를 했으며 이인승 선교사가 축하 연주를, 미주총신대학 중창단이 특별찬양을 불렀다.

또한 이날 선교사 파송식도 열렸



남가주리디머교회 창립 3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에서 임직받은 임직자들과 김요섭 담임목사.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h3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번아가는 교회</h3> <h2 style="text-align: center;">서부(CA)교회안내</h2>	<h4 style="text-align: center;">감사한인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김병길</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441-3779 / Fax: (714)441-3781 1643 Beverly Ave, Los Angeles, CA 90025 L.A.saintmu@gmail.com</p>	<h4 style="text-align: center;">나성순복음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권유철</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219-4444 / Fax: (714)219-4444 1700 N. Hollywood St., L.A. CA 90027</p>	<h4 style="text-align: center;">나성열린문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박현성</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413-1000, (714)413-1011 1528 E. Ventura Ave., L.A. CA 90019 www.nscopen.com</p>	<h4 style="text-align: center;">나성서부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이경현</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323)836-7222, (626)283-8566 1218 E. Ventura Ave., L.A. CA 90019 (626)715-2222</p>	<h4 style="text-align: center;">나침반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민경열</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238-4545, (714)238-4587 8701 Sunset Ave., Sunnyside, CA 90260</p>	
<h4 style="text-align: center;">남가주든든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김원현</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481-9779 / Fax: (714)481-9781 1643 Beverly Ave, Los Angeles, CA 90025 L.A.saintmu@gmail.com</p>	<h4 style="text-align: center;">남가주리디머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김요섭</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213)225-9222, Fax: (213)225-9277 1536 W. Western Ave., L.A. CA 90019</p>	<h4 style="text-align: center;">남가주사랑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권영국</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779-7777, Fax: (714)779-6777 1711 N. Bradstreet St., Azusa, CA 91001</p>	<h4 style="text-align: center;">대흥장로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권영국</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779-2244, Fax: (714)779-2229 1847 E.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 style="text-align: center;">디아스포라선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Steve Hagan Ministy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 전영복 목사</p> <p style="text-align: center;">"영광에 대한 찬양과 찬양을 찬양으로 찬양하여 찬양자를 기쁘게 찬양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 (714)219-4444 / Fax: (714)219-4444 1812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19 www.aspc.org</p>	<h4 style="text-align: center;">드림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이성현</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909)293-6880, (909) 293-6880 1258 E. Colorado St., Pasadena, CA 91756</p>	<h4 style="text-align: center;">라이브라 삼성장로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심현규</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626)283-4545, (626)283-4587 501 E. Lido St., La Habra, CA 90631</p>
<h4 style="text-align: center;">미주양곡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지용덕</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213)285-8577, 8679 519 E. Western Ave., L.A. CA 90020</p>	<h4 style="text-align: center;">미주평안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송경명</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15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www.mjpccsaintmu.org Tel: (213)225-9222, Fax: (213)225-9277 170 Bimby Pl, Los Angeles, CA 90066</p>	<h4 style="text-align: center;">방주선교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박용서</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00(3시)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3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3시)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219-4444 / Fax: (714)219-4444 2728 Maywood Ave., Compton, CA 95608</p>	<h4 style="text-align: center;">매달인인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손연식</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909)254-6019 / E-mail: zshin@me.com 18700 Harvest Ave., Fontana, CA 92332 www.mdz.org</p>	<h4 style="text-align: center;">맨큐버빌라멜리아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임진택</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909)294-0780, Fax: (909)294-0787 8125 152nd St., Surrey, B.C. Canada, V3V 5W6</p>	<h4 style="text-align: center;">복음장로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김성덕</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909)294-0780, Fax: (909)294-0787 175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31</p>	<h4 style="text-align: center;">브리지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장재성</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909)294-0780, Fax: (909)294-0787 1067 E. Basler St., Corona, CA 92724</p>
<h4 style="text-align: center;">세계비전 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김재현</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219-4444, Fax: (714)219-4444 1614 Alhambra St., Northridge, CA 91329</p>	<h4 style="text-align: center;">세계소망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오세훈</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745-9191(24시), (714)745-9203-9207 3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 style="text-align: center;">새창조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정병계</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909)225-0201, Fax: (909)225-0202 23814 E. Venetian Ave., Harbor City, CA 90719</p>	<h4 style="text-align: center;">안디옥장로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지용성</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3시)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909)249-2377, Fax: (909)249-2379 2720 Montevideo, Montevideo, CA 91020</p>	<h4 style="text-align: center;">얼마인침례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한종수</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909)294-0780 / Fax: (909)294-0787 2507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4 style="text-align: center;">오턴지카온티지침장로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임영민</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881-9228 / Fax: (714)881-9267 8500 Baker Ave., Westchester, CA 93899</p>	<h4 style="text-align: center;">요셉선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정상호</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213)245-6990 2728 Jesse St, Wood Blvd., L.A. CA 90066</p>
<h4 style="text-align: center;">원서크리스천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임규서</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3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3시) 수요예배: 오후 7:30(3시)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249-4272, Fax: (714)249-4266 636 E. Normandie Ave., L.A. CA 90005</p>	<h4 style="text-align: center;">은혜인인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한기훈</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445-9215, Fax: (714)445-921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22</p>	<h4 style="text-align: center;">인랜드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박진철</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909)225-0201, Fax: (909)225-0202 1291 N. Glen Ave., Pomona, CA 91768</p>	<h4 style="text-align: center;">주님의영광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신승훈</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714)745-9191, Fax: (714)745-9207 1671 E. Grand Ave., L.A. CA 90076</p>	<h4 style="text-align: center;">장대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이준근</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3시)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909)294-0780, Fax: (909)294-0787 173 E. Dimes St., San Bernardino, CA 92406</p>	<h4 style="text-align: center;">코너스톤 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이종용</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전화: (909)294-0780, Fax: (909)294-0787 3628 E. Walnut Ave., Brea, CA 92606</p>	<h4 style="text-align: center;">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style="text-align: center;">L.A.: Tel: (323)995-0709 N.Y.: Tel: (718)926-46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번가리는 복음입니다</p>

특별기고

“오라, 런던으로! 나가자, 세계를 향해!”

런던올림픽을 선교의 현장으로

김성래 선교사 (LOMC 사무총장)



올림픽 경기장 근처 브렌트우드(Brentwood) 지역에 있는 Trinity Church에서 연영할 계획에 있다.

이번 런던 올림픽은 바로 '세계 선교를 바로 당신 문 앞에서'(World Mission at Your Door)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시대 영국과 런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한 최대의 기회이고 축복이라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올림픽 선교대회들을 통해 영국과 전 세계에 한인디아스포라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너져가는 영국교회회를 위해 기도도 섬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일은 이번 올림픽 선교를 위해서 재영한인교회연합회와 재영선교사협의회의 런던선교대회 등 크고 작은 국제 선교단체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협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재영한인교회원로를 중심으로 지도위원단이 구성되고 국제선교단체와 그 외에 협력단체대표들을 중심으로 공동대회장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실무조직에는 본 부장에 김주경 선교사(Ammos), 사무총장에 김성래 선교사(CCC)를 선임하고 행정, 사역, 관리 등 세 명의 총무단과 10개 팀장으로 구성하여 이번 런던올림픽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200여일 남은 올림픽 선교의 현장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올림픽선교캠프 일정: 1주/7월 27일(금)-8월 03일(금) 2주/8월 04일(토)-8월 11일(토)

△런던 올림픽 선교대회(LOMC) 웹사이트: www.2012lomc.org

△문의: 사무총장 김성래 선교사(+44 7886 675 648) 행정총무 조우형 목사(+44 7920 858 139)

△Email: 2012lomc@gmail.com



런던올림픽 선교캠프가 열리게 될 트리니티처치



2012년 세계이슬람 단편 뉴스



전호진 박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총장)

오바마 미행정부가 보는 세계 6개 분쟁 지역(Volatile World)에 대한 전망은 희비가 교차한다(1월30일자 타임지) 보도. 북한 최고의 권력으로 부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개방을 이끄는 개혁자로서의 변모를 기대하는 동시에 권력을 견고히 한 후 핵개발을 가속화시키고 결국은 남한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예측된다.

이라크의 경우도 미국 철수 이후 이라크 경제와 정치가 닦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면에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간 갈등이 내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공화당은 미국의 이라크 철수가 오바마의 실책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명암 교차가 예상되는 2012년의 시작에 이슬람 지역의 몇몇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해지는 종파 분쟁

이란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사는 시아파들의 불안과 고립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소수의 시아파들이 타깃으로 극우의 다수 수니파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5일 이슬람교 시아파 최대의 종교성인인 아슈라를 위해 운집한 이라크에서 55명 이상의 시아파 사람들이 수니파 무함마드의 손자 후세인의 순교를 기리는 날이다.

시아파를 타깃으로 하는 수니파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무장 세력은 2012년 1월 10일 다시 폭탄 테러를 감행해 19명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미군 철수 직후 종파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의 시아파 거주 지역에서는 1월5일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6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오전 9시 바그다드 북부 카지미야의 교차로에서 자동차에 설치된 폭탄이 터져 1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폭탄이 터진 사드르 시티에서 사상자들과 함께 일감을 기다리던 일용 노동자인 아메드 칼라프는 “정치인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고 말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달 18일 17만 명의 미군이 철수한 이후 다수파인 시아파와 소수파인 수니파간 종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아파를 상대로 하는 수니파들의 공격은 이라크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1월 15일 파키스탄의 펀잡 지역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21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아까지 종파 분쟁으로 치닫게 된다면 이 과정은 이웃 나라인 레바논으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한다. 레바논은 시아파와 수니파가 각각 전 인구의 1/3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아파의 헤즈볼라가 전통적인 수니파의 세력을 능가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아파 헤즈볼라가 시리

아의 지원을 계속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레바논 내 또 다른 종파 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한편에서는 수니파 공격으로 인한 시아파의 고통을 국제적인 음모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예를 들어, 예멘의 라다(Radaa) 지역은 알카에다에 의해 점령을 당했는데 이것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작하여 이 지역에서 종파 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파키스탄에 있는 시아파의 한 웹사이트는 미국과 알카에다가 서로 손을 잡고 이라크와 시리아를 파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The Economist, January 21st-27th 2012:46).

쿠웨이트 왕자의 개종

지난 1월 12일자 중동의 알 하카카라는 한 기독교 선교방송은 쿠웨이트의 한 왕자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놀랍게도 그 왕자는 자신의 이름이 압둘라 알 사바라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심지어 만약 자신이 개종이 이유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다면 자신은 하늘나라로 가서 예수님 얼굴을 대면하여 영원히 그와 함께 살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왕자는 순교할 각오를 밝힌 셈이다. 압둘라는 알라의 종을 의미한다(2011년 12월16일자 동남아 가톨릭뉴스에서).



데모가 계속되는 시리아

새해 10일 시리아 대통령 알 아사드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하

지 않고 물러가려는 반대대모를 도리어 “쇠주먹”으로 억압하고 있다. 서방인권 단체는 이미 강경진압으로 사망한 자가 5천명을 넘는다고 발표하였다. 아랍연맹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리비아식 서방이나 미국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BBC는 2012년 1월24일자 시리아 외무부 장관은 “아랍연맹의 중재는 시리아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국제음모”라고 몰아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협력 이사회 6개 회원국은 아랍연맹 감시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시리아 상황에 대해 이란은 계속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니파 정부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개입을 반대하는 등 이슬람권 내에서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십자가 데모하는 파키스탄 기독교 신자

지난 해, 성탄절을 즈음하여 파키스탄의 한 무슬림 신발장수가 구두에 십자가를 새겨서 판매한 사건이 있었다. 신발에 그려진 십자가를 본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기독교를 향한 모욕으로 여기고 해당 경찰에게 정식으로 판매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기독교인들은 십자가가 그려진 신발의 판매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든 채 해당 관청 앞에서 이에 항의하였다.

이슬람 국가에서 신발은 모독의 상징이다. 신발을 던진다면 가 신발에 무언가를 새기는 등의 행위도 동일하게 여겨진다. 몇 년 전 이라크 기자가 서방 외국인을 향해 신발을 집어던진 사건이 문제시 되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돈돈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8:30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상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 요 예 배: 오후 4:30 (1부예배 4시)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장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사이영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월요일을 위한 헌신예배)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재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7: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목회기도회: 오전 10:00(만남)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장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목회기도회: 오전 5:00(만남)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미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8: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요 예 배: 오후 8:30(2부)	왕성교회 담임목사: 권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창도교회 담임목사: 최승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목회기도회: 새벽 8:30	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장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탄자니아

브와나 아시파웨!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로 탄자니아 모로고로에서 문안드립니다. 2012년 저희가 탄자니아 선교지로 온지 벌써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긴 시간도 아니요 빠르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듯 합니다.

2012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 "꿈을 꾸자"라는 주제로 저의 오랜 친구 현직인 삼손 목사님과 함께 빌리마니 비타투교회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정확히 교회개척을 시작하지 1주년이 되는 중간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장소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훈련원센터에서 했습니다. 벽돌이 여기저기 어수선했던 훈련원은 교인들의 순발력으로 금방 완벽한 수련장으로 갖춰져있고 잠자리, 부엌, 화장실, 샤워실 등 모든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문과 창문은 대강 천으로 가리고 30-4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의 앞 벽은 강의할 때 너무 산만할 것 같아 급히 2일 전에 미장을 해 안경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가족장에서 연결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정도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낫지 하면서 제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새벽과 저녁은 삼손목사의 부흥회 형식으로 아침과 오후는 저의 강의로 했고, 은선 선교사와 수빈자매는 인성테스트로 한나절을 감당했습니다. 은선선교사와 수빈자매의 인성테스트 결과는 모두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리더십(?)을 갖춘 성도들의 성향과 결과가 나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숙소는 저와 삼손목사를 포함한 남자숙소 방 하나에 여자들 역시 방 하나에 스텝과 성도들이 함께 지냈습니다. 2박3일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먹고 자니 무언가 좋살이는 것 같고 걸리는 것 같아 아주 좋았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체들도 되지 않은 아이를 안고 새벽기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참전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나 엄마 모두가 양상한 몸인데 아이는 틈만 있으면 엄마의 젖을 빼는데 좀 답답한 마음에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 모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20살 이상 나이 격차가 있는 듯 한 남편의 말은 엄마가 애이즈 환자라는데... 최대한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은 했지만 마지막 날 CDP를 하면 아이들에게 주려고 고이 간직했던 영양제 한 봉지를 주었습니다. 역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는 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꾸벅 "아산테"(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한

마디 남기고 좋은지, 나쁜지 표현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서는 부부의 뒷모습에 내가 감사의 표현은 굳이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현금으로 치면 최소 오십만원이 넘는 영양제인데... 이것이 문화인가!?

어쨌든 수련회는 무사히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한 가지씩 면담을 통해서 스텝 중 목사인 라반을 리더로 세우고 5가지의 영농작목반(망고, 오렌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증과 함께 기념으로 함께한 봉지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삼손목사도 참 좋았던 것으로 본 교단의 농촌교회들도 이런 수련회를 가진 후에 영농작목반을 구성해 교회의 자립의 기틀을 준비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원 시설이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어야 되며 천천히 조금씩 가까운 교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인들의 농산물 경작과, 판로,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은 2박3일이



지만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시작 전 주일에 수련회를 위한 현금시간을 통해 닭, 음료수, 현금 등을 교인들 스스로 모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모자라 있던 차에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부족한 재정이 채워져서 모두 함께 먹고 자며 수련회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를 쉬고 주일은 삼손목사의 집례로 성찬식과 7명의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수련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3-4개월 전부터 가졌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였습니다. 그래야만 날짜는 정하자 생각하고 4주 전 무작정 날짜를 정하고 교회에 광고를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수련회 시작 전날도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생각은 짙은 흑암에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주 전부터 하나의 맥을 잇는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사11:6-9)라는 제목이었는데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사가 선지자가 메시아,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상 가운데 보고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 꿈은 "빌리마니 비타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지역사회를 십자가 세계관과 가치관이 지역사회 문화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자"고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2012년 첫째 주 예배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권고하는 자"(사 66:2)였는데 마음이 가난한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천국을 이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련회 다음 주간인 둘째 주의 주일설교는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행3:1-10)라는 제목으로 "선교사인 나를 그 어떤 물질을 바라

는 마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질병이 그리고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가 돌아 갈 곳은 세상이 아니라, 성전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약의 편지에서 자주 쓰지 않던 교회 개척, 성도라는 단어들 이 이번 언약의 편지에는 좀 많이 썼습니다. 좀 어색하지 않았는지요? 편신도 선교사인 제가 교회개척, 성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제 스스로도 좀 쑥스럽고 어색합니다. 사실은 긴 시간 가운데 고민과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정쩡한 저의 신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곳마다 지역교회 개념으로 하고자 합니다. 농업지도자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한 교회, 그리고 철저하게 지역공동체의 자립형 지역교회의 개념으로 하고자 합니다. 라반과 동기인



선교지 편지

태국

할렐루야!! 주님을 통하여 알게 하신 귀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새해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공동체적 사랑의 큰 빛을 지고 사는 태국에서 10년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박수영선교사라고 합니다. 올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에 많이 퍼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2년이 시작하기도 벌써 2주가 지나갔고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도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삶을 살면 살수록 시간이 마치 화살과도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수많은 분들의 기도의 수고와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곳 태국에서 좋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선교사가 되어 태국에 파송된 지 만10년째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2002년 한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6월 중순에 불교가 국교이며 전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도이며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지만 사람들은 한없이 순박하기만 하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나라이며 한중말과도 같은 더위가 있는 나라 태국에 도착하여, 낯설은 언어를 배우고 이해되지 않는 이들의 문화를 배우고 울고 웃던 기억이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더 있지만, 이제는 잠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하면 한국의 산천보다 태국의 풍경이, 한국의 김치찌개 보다 태국의 솜뎀이 더 먼저 생각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저희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태국에서 신학교강의사역과 컴퓨터교육 및 보급 사역 및 찬양사역 등을 하면서 태국과 태국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태국 내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을 이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태국선교에 있어서 선교를 위한 접촉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 태국인들이 가장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한 접촉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현지 교회 개척을 하고 먼저 가족들이 준비하므로 공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 속한 지역에서의 문화 접촉점 사역을 위하여 음악교육(클래식을 포함한 실용음악)사역을 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리아 음악학원은 정식으로 문교부의 인가를 받고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글로리아 음악학원으로 인하여 많은 태국인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인데 올바른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태국의 예배회복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함께 중심에 심어주며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사역을 위해 2012년 2월 20일 저녁 7시에 태국 방콕 스쿰빗 소이10에 위치한 스퀘어B/D 2층에서 태국선교교회 설립예배와 글로리아 음악학원 개원 예배를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바쁘시더라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 예배에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시간에 처한 곳에서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음향설비, 사무용품 등 아직 채워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도와 더불어 채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월경에는 한 달 예정으로 아내와 함께 그동안의 선교사역을 후원자들에게 보고 드리고자 한국과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아내의 CCM 찬양집회(작년에 정식 음반 발매와 함께 찬양가수로 활동 중)와 저의 간증집회(뇌성마비를 극복하고 선교하는 선교사) 및 선교보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소개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문예정지는 서울, LA, 시카고, 세인트루이스와 그 주변도시들과 집회를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태국에 임하길..

태국선교교회 박수영 목사 드림

이메일: parksy1998@naver.com, esther355@naver.com

축제같은 예배! 신바람 나는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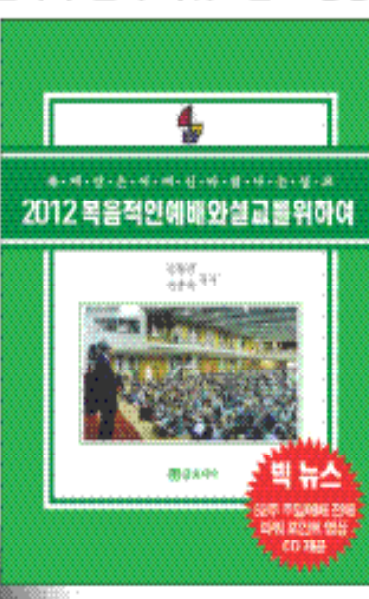
한국교회행복센터

김항안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신바람 목회의 부식돌!

교회력에 따라 만들어진 1년 52주 주일예배와 특별예배를 위한 설교와 예배 가이드 북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 김항안 선종목 목사 공저 ● 바인더(A5)/282쪽 ● 가격 : 19,000원
● 부록: 52주 주일예배 전체 파워포인트 영상 CD 제공



성탄카드 대신에 보내 드리는

마음의 책

● 김항안 목사 저
● 판형 : 4x8판 / 80쪽
● 가격 : 2,800원
● 우편 봉투 내장



올 성탄절에는 카드 대신에 "성탄 카드북"을 보냅니다

김항안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성탄절 문헌의 대안인

Why Christmas?

- 왜? 크리스마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는가?
- 왜? 수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는가?
-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을 축제의 한 마당으로 만들어 가는가?
- 왜? 그렇게 많은 풍습과 전통들이 만들어 지는가?
-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가?
여기 그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성탄 카드 대신에 보내드리는 마음의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실제 프로그램 7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설교 46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예화 127편
● 판형 : 신국판 / 416쪽
● 정가 : 10,000원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카드 실제모습)

● 200개의 다양한 말씀과 그림
● 교회주 소, 전화, 이름 등 인쇄
● 코팅과 함께 리본 제공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자료 제공
● 200성구에 대한 심방설교 제공
● 주문 수량만큼 '책갈피' 제공

은혜스러운 송구영신 영상비디오

● 참회, 감동, 소망 절단이 있는 영상비디오 & CD

한국교회행복센터 **글로벌로리아**

www.kcdc.net
824-3004, 5004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3)



1. 성격-교외중심교육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한인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그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격은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은 "교회 중심의 교육"(church centered education)이며,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현재적 모습을 서술한 것이지만(Description), 다른 한편으로는 (1)우리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의 기독교 교육적 노력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2)우리에게 맞는 우리 나름의 기독교 교육의 면면들을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일이라(Prescription)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교회의 기독교 교육적 노력들의 면면들을 그대로 모두 다 행할 수도, 행할 당위성도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우리에게 맞는 우리 나름의 기독교 교육의 면면들을 마련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한인교회에 맞는 우리 한인교회 나름의 기독교 교육의 면면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인교회들이 갖는 한인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사명이 그 만큼 막중하다는

년부, 그리고 장년부 등을 위한 체계적인 성공공부와 소그룹 활동, 다양한 영적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아 신앙적으로 탄탄한 사역자들을 모시기 시작했고, 영어권 자녀들을 위한 교역자를 모시는 일도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그 영어권 자녀들을 교육하는 사명과 관계된 수많은 이슈들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고민해 왔으며,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등을 운영하는 일에도 열과 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교육적 노력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방향성과 목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이 바로 우리 한인 기독교 교육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해왔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교회 중심의 교육"으로서의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모습이 과연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중심 교육으로서의 그 본질적 성격을 굳이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

복음증거, 신앙훈련, 영성훈련, 선교활동 등 집중 실행할 수 있다는 교회교육 장점 강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이는 이미 100년을 훌쩍 넘긴 한인 이민 역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처음 한인교회가 세워진 20세기 초반부터 한인교회는 한인교육을 위한 메카였습니다. 교육의 기회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온 노동자들이 한인 구성원들의 주유였던 초창기부터 한인교회들은 이들을 위해 성경말씀을 통해 기초교육을 실행했고, 나아가 문화 교육 및 도덕성 교육 등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후로 기초교육의 필요성이 희미해진 다음에는 한인교회들은 한인들의 신앙교육의 메카이었을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민족 문화와 전통을 계승시키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및 도덕성 등을 함양시키고, 또한 자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교육을 감당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생활로 힘들고 지친 한인들에게 위로와 안정감과 소속감과 실제적인 생활적 도움을 주는(이 또한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체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처음에 주먹구구식이었던 한인교회들의 기독교 교육은 점차 체계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인교회들은 영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정

더러, 바깥 당위성도 없고 그런 모험을 감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 온 그래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교회 중심의 교육"을 더욱 잘 가다듬고 성실히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중심의 교육"이라는 성격이 갖는 장점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등에서는 아무리 기독교 학교들이라도 일정 정도 희석되고 타협되어야만 하는 복음 증거, 신앙훈련, 영성 훈련, 그리고 선교활동 등을 교회 교육에서의 집중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학교 등에서 행해지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일이나 모든 학문을 성경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일, 그리고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적 탐구 등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우리 한인교회가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의 "교회 중심의 교육"을 발전시켜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교회)

월 최선의 과정 (마14:13-19)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17-18절). 즉 그들이 가진 것이 비록 하찮고 부족할 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게 오천 명을 먹이는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열매,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썼는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화 축복의 잔여물 (마14:20-21)

20절, 제자들이 무리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을 광주리에 거둬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의 무리들을 남김없이 다 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두 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면 쓰고 남은 물건, 물질들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에 쓰고 이제 남은 것들은 혹시 불필요한 사치와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고 남도록 주시

는 것은 헛되이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은 그 남은 것들도 주님이 베푸신 축복의 잔여물이기에 청지기의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일에 그것 또한 사용하라는 주님의 교훈에 우리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수 내면의 질서 (마14:22-29)

23절에 주님께서 따르느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조차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이후에 홀로 산에 올라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뒤로 한 채,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우리도 때때로 이런 내면세계를 정리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동요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세계가 항상 질서

가 잡혀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홀로된 시간이 와도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들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가고 이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목 주님만 바라보라 (마14:30-36)

30절을 보면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속에 빠진 이유가 바로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날 때 우리는 곧 믿음의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떠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아무리 큰 환난이 우

리를 흔들어도, 주님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나를 들으시리로다"(미7:7). 이 험준한 세상의 거친 세파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항상 그에게로 향하는, 그래서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 엄격한 잣대 (마15:1-9)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고 힐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근거는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 이 유전은 당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이 힐문은 정당해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힐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그 이유는 제자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과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성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들은 결코 것처럼 쉽게 제자들을 죄인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재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7:3).

토 심은 것 vs. 심으시지 않은 것 (마15:10-20)

13절을 보면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은 것'이란 주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은 장로의 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과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근절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중국에는 다 뽑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이지만 정하

신 때가 되면 그릇된 교리와 그 추종자들, 그리고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까지 이 땅에서 뽑혀 영원히 타는 지옥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마13:40-43).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뽑혀지게 될 이 세상의 불의와 불평, 그리고 부정과 타협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심으신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2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2년 5월 시행될 "목사 학력 및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했거나 2012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뚜렷한 무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2년 5월 17일(금) ~ 21일(월)
- 2) 고시 장소: Sheraton Meadowslands Hotel & Conference Center, East Rutherford, NJ, 07073 (Tel: 201-896-0500)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 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한문 (이상 4과목)
- 2) 제출 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문고 (이상 4편)
 - (1) 구약 주해 - 창세기 31-21
 - (2) 신약 주해 - 마태복음 3:8-13
 - (3) 논문 제목 - VeriChip에 관하여 개혁주의 성경적 입장에서 논하시오.
 - (4) 설교 문고 - 1, 구약: 요엘2:28-32, 2, 신약: 사도행전21-12
 - ① 두 본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② 필기고사 당일엔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설기교사를 지음.
-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주해 및 논문은 이에 지칭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제출할 것.
 -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문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2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 (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영행면 사진 2장
- 7) 고시료: \$10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2년 3월 31일자 무죄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36회 총회(7월 22일-24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장은 고사부 서기 최해근 목사에게 속소를 연락할 것
-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자갈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2. 사별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사부 서기: 최해근 목사 (Rev. Hae Choi) / Email: hankschoi@gmail.com,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 Call: 267-471-7777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사부 부장: 이정현 목사 (310)7749-0677 (lekwpc0316@yahoo.co.kr)
- 2) 고사부 서기: 최해근 목사 (267)471-7777 (hankschoi@gmail.com)
- 3) 영어권 안내: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총회장: 강기봉 목사

서기: 송성섭 목사

고시부 부장: 이정현 목사

고시부 서기: 최해근 목사

한국에서 만납시다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힐 호텔

강사



김응도 목사
• 금란교회
• 주강사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 주강사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 주강사



왕익영 목사
• SBM,대표



현성덕 목사
• 캐나다 대회장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조일래 목사
• 수정교회



송용걸 목사
• 신천교회
• 현지대회장



이영섭 목사
• 불티묘어교회



이명연 목사
• 나성서부교회



김승욱 목사
• 할렐루야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조일구 목사
• 호놀룰루현인정로교회



송규식 목사
• 차세대 연구소 소장



장영준 목사
• 본지 발행인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교회 이름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 와 같은 빙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명		
소계		
신금		CK#
전금		CK#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전금을 등록만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참석대상**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금**
 목사·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 (*선착순 마감) (2012년 2월29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 한국현지등록: 50불(숙박제외)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presssj@hanmail.net
 한국 등록처: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02)490-7000, FAX. (02)436-5770

- **항공권/관광 문의:**
 뉴욕서울왕복 항공료: 1,250불 (Senior 1,160불)-아시아나항공
 LA 서울 왕복 항공료: 1,190불 (Senior 1,130불)-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과 3박 4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관광, 모든 Tax포함 1,560불(뉴욕, LA 출발)
 담당자 :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